



금강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오늘의 조국사 2026 ISSN 1727-906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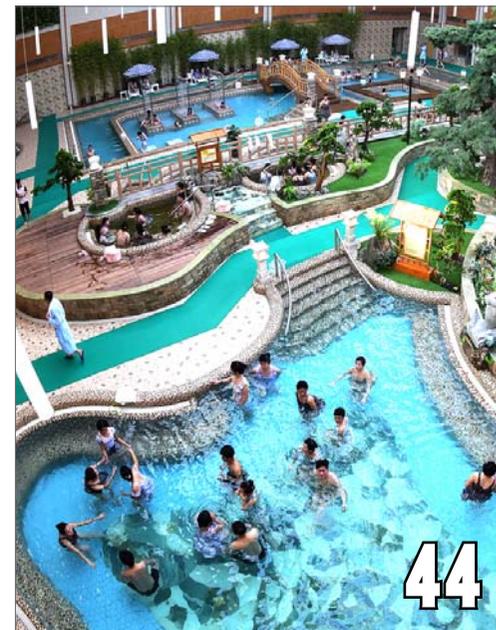
2026년

루게 제 439호 월간

표지: 선진문명이 응축된 화성지구

지난 2월에 건축조형예술성과 선진성이 결합된 또 하나의 건축군이 일떠서 평양의 화성지구에는 웅근 하나의 현대적인 도시행정구역이 형성되었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 2 || 천사만사중의 첫자리에
- 6 || 인민들의 생활속에 소중한 자리잡은 곳
- 일화
- 9 || 위민헌신의 나날에
- 10 || 검진대장에 비긴 세쌍둥이들의 모습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린 선물
- 12 || 수정공예 《붉은 태양》
- 13 || 주제사상과 민족적자존심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 14 || 낮에는 적의 세상, 밤이면 우리 세상
- 16 || 토지개혁과 더불어 80년
- 19 || 조선식사회주의전면발전리론의 특징에 대한 고찰 (1)
- 20 || 철강재생산성과 더욱 확대
- 고향소식
- 22 || 함주땅에 펼쳐지는 전변의 모습
- 애국의 낮은 대를 이어
- 26 || 아버지의 뒤를 이어
- 28 || 우리는 조선사람이다

- 인상기
- 29 || 새 힘이 솟는다
- 29 || 자랑으로, 긍지로 여긴다

- 3.8국제부녀절을 맞으며
- 30 || 사랑과 존경속에
- 32 || 취재길에서 만난 사람들
- 34 || 남다른 긍지를 안고
- 36 || 녹색기술개발에 힘을 넣어
- 37 || 소년힘장사
- 38 || 지능개발에 도움을 주는 조립식놀이감들
- 40 || 축구가정
- 42 || 누구나 기다리는 무대
- 44 || 우리 생활속의 양덕온전문화
- 48 || 세계지질공원 백두산지구 (7)
- 50 || 백두산일대에서 새로운 유적들 발굴

- 조국의 력사유적을 찾아
- 52 || 백두산의 《룡신비각》

- 지명유래
- 53 || 룡강군

- 력사인물
- 54 || 풍자시인 김삿갓

- 55 || 민속명절 정월대보름

- 전설
- 56 || 썩떡에 깃든 사연

편집: 김광수, 최은혁, 서철남, 문송연

천사만사중의 첫자리에

지난해 10월 조선로동당창건 80돐을 맞으며 수도에 사회주의보건의 상징물로 평양종합병원이 일떠섰고 그로부터 한달후에는 강동군병원이, 한해가 다 저물어가는 마지막달에는 구성시병원, 룡강군병원이 준공되었다.

신문과 TV를 마주한 인민들은 누구나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병원뿐 아니라 낱알이 전해지는 지방공업공장과 종합봉사소, 살림집들의 준공을 보면서 온 나라 방방곡곡에 속속 도래하고있는 새 생활을 체감하였기때문이었다.

특히 강동군, 룡강군, 구성시인민들이 눈곱을 적시었다. 그것은 자기 지역에서 수도시민들과 다름없는 선진적인 의료봉사를 마음껏 받을수 있 기때문이었다.

얼마전 조국을 방문한 재중동포 김련원도 《저런 병원들에서 한번 치료를 받아보는것이 소원입니다.》라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누구나 가보고싶고 치료를 받고싶어하는 병원, 그 병원들은 저절로 세워진것이 아니다.

이는 보건부문의 획기적이며 새로운 질적인 변화로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하고 행복넘친 생활 조건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헌신과 로고를 바쳐 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보건혁명의 원년을 장식하며 2025년 11월초 현대적인 평양종합병원이 개원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보건부문에서 중추적기능과 역할을 할수 있는 일류급의 종합병원건설을 구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평양시에 현대적인 종합병원을 건설할데

대한 과업을 토의결정하시교 공사를 완공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각방으로 추진하도록 하시였다.

초기에 일부 일군들은 그이께 평양종합병원의 건설터전을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 하는 의향을 말씀드리였다. 일군들이 올리는 보고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이곳에 우리 인민을 위한 현대적인 종합병원이 크게 건설되는것을 아시면 아마도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제일로 기뻐하실것이라고 하시며 계획대로 병원건설을 진척시키도록 하시였다.



강동군을 비롯한 여러 지방에도 현대적인 병원들이 일떠섰다.



2020년 3월 평양종합병원건설착공식에서 그이께서는 병원건설의 중요성을 우리 당의 숙원사업이라는 부름으로 표현하시였다. 그리시면서 우리 인민들과 후대들이 사회주의보건의 혜택속에서 가장 선진적인 의료봉사를 마음껏 받으며 모두가 무병무탈하고 문명생활을 누리면 우리 당에 그보다 더 기쁘고 힘이 되는 일은 없다고 하시였다.

그로부터 4달후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14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도 평양종합병원 건설을 다그치고 의료봉사를 위한 인적 및 물질 기술적보장대책을 강구할데 대한 문제가 중요 의정으로 토의되였다.

한여름의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건설 현장에 나오시여 세심한 지도를 주시고 완공된 평양종합병원을 찾으시여서는 병원을 사소한 결점도 없는 최상급의 의료봉사거점으로 완성하여 인민들에게 선물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신 그이의 령도에 의하여 평양종합병원은 사회주의 보건의 상징으로 자기의 자태를 드러내게 되였다.

돌이켜보면 인민들이 현대의학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며 무병무탈하게 하시려는 그이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이 땅우에는 소중한 재부들이 일떠섰다.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 류경안과종합병원, 류경치과병원, 옥류아동병원...

이 창조물들의 이름은 서로 달라도 하나로 관통된것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하나가 다 우리 인민모두가 무병무탈하여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숙원이 떠올린 사랑의 결정체라는것이다.

하건만 그이께서는 이러한 성과들은 우리 당의 높은 리상과 포부에 비해볼 때 큰 산속의 모래알에 불과하다고 하시면서 우리 보건을 인민적이고도 선진적인 보건으로 일떠세워주시기 위하여 로고를 바쳐가시였다.

삼지연시병원을 일떠세워주시던 그대에 벌써

머지않아 산골이건 어촌이건 농촌이건 온 나라 인민들에게 이런 훌륭한 병원들을 선물로 안겨 주실 구상을 무르익히시였고 나날이 그 생활력이 나타나고있는 삼지연시병원의 기쁜 소식을 들으실 때마다 시, 군병원들을 일신시키는 문제의 절박성을 시시각각 느끼시며 해당 지역의 인구수에 비한 병원의 규모, 설비구성안을 구체적으로 따져보신 그이이시다.

천사만사중에서도 인민의 생명안전과 건강증진을 첫자리에 놓으신 그이께서는 수도와 지방이 다같이 발전하고 변모되는 시대에 지방 인민들도 수도시민들과 다름없는 선진적인 의료봉사를 마음껏 받도록 하기 위하여 현대적인 보건의시설건설을 지방발전정책의 3대필수대상의 하나로 선정하시였다.

사실 병원건설은 하부구조의 말단으로부터 의료설비와 기구에 이르기까지 기술적으로 호환되어야 하며 살림집이나 산업건물건설에 비하여 몇십배의 품이 들고 높은 시공기술과 값비싼 자재, 많은 자금이 소요된다. 이러한 병원을 한두개도 아니고 전국의 모든 시, 군들에 그것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건설한다는것은 순수 경제적타산이나 보통의 상식으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것이다.

지난해 2월 《지방발전 20×10 정책》 강동군 병원과 종합봉사소건설착공식에서 그이께서는 지방을 변혁하고 문명부강한 국가를 건설하고자 우리 당이 구상하고 강력히 실행해나가는 천사만사중에서 인민의 생명안전과 건강증진을 도모함은 마땅히 첫자리에 놓여있다고 하시였다.

그후에도 그이께서는 강동군병원건설장을 찾으시여 시공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며 병원 운영준비에서 나서는 제반 과업들을 환히 밝혀주시였고 완공단계에 이르렀을 때에도 나오시여 이제부터 우리앞에 나선 보건분야현대화계획사업의 중요목표는 매해 어김없이 20개 시, 군들에 이와 같은 현대적인 병원들을 건설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나라의 보건시설건설력량을 확대하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이리시였다.

인민이 반기는 새 문명의 창조물들을 인민들 자신의 눈앞에, 피부에, 생활에 더 많이, 더 빨리, 더 정당하게 가닿게 하기 위한 그이의 발자취는 구성시병원건설장에도 새겨졌다.

오로지 인민을 위해 건설중에도, 완공단계에 이르렀을 때에도, 준공의 날에도 거듭 찾고찾으신 그이의 헌신에 의하여 강동군병원과 룡강군병원, 구성시병원은 착공당해에 준공되는 놀라운 기적이 창조되였다.

지금도 현대적인 보건시설건설은 계속되고 있으며 부단히 가속화되고있다.

새시대 보건혁명을 일으켜 우리의 보건을 가장 선진적이고 현대적인 보건으로 만들려는 우리 당의 결심은 확고하다.

인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멸사복무의 령정을 이어가시는 그이의 령도에 의하여 이 땅에서는 무병장수를 노래하는 인민의 기쁨의 노래소리, 웃음소리가 끝없이 울려 퍼질것이다.

글 엄향심, 사진 조선중앙통신



인민들의 생활속에 소중히 자리잡은 곳

의료봉사기지들이 준비하게 늘어난 평양시 문수지구에 또 하나의 기념비적건축물인 평양 종합병원이 일떠섰다.

평양종합병원은 지난해 조선로동당창건 80돐을 맞으며 준공하였다.

병원은 건축양상으로부터 모든 구성요소들과

공간환경이 환자들의 정신심리적안정을 도모하면서 현대성, 선진성, 전문성이 구현된 종합적인 의료봉사기지이다.

또한 국내보건부문에서 진단치료중심, 임상연구 및 보급중심, 학술교류중심, 전문가양성거점이다.

우수한 치료환경속에서 선진수준의 의료봉사를 받으며 사람들은 한결같이 억만금을 들여 인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사회주의보건제도에 대한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평양종합병원은 문수지구의 품치를 더한층 부각시키고있다.

예로부터 문수지구는 대동강을 끼고있는데다 강건너에 산세수려한 모란봉을 마주하고있어 경치가 이룰데 없는 곳으로 일러오고있다.

바로 이 명당자리에 지난 시기 현대적인 보건시설들이 수많이 일떠섰다.

1980년대이후로 평양산원, 김만유병원, 고려의학종합병원이 세워지고 2010년대에 들어서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와 옥류아동병원, 류경안과종합병원, 류경치과병원, 문수기능회복원이

일떠서 문수지구에는 하나의 병원촌이 꾸러지게 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이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의료봉사를 마음껏 받게 되었다.

언제인가 류경안과종합병원을 방문했던 한 외국인은 감상록에 이런 글을 남긴적 있다.

《세계적으로 의료봉사는 가장 고급한 봉사에 속한다. 내가 사는 나라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최상급의 병원에서 치료받을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어떤가. 평범한 근로자들이 첨단의료설비를 통한 검진 및 예방치료를 받고있는 이 믿을수 없는 현실을 나는 여기서, 문수지구의 병원촌에서 목격하였다.》

여성들의 해산방조뿐 아니라 건강과 관련한 의학기술적문제들을 연구하고 해결해나가는 연구중심으로 발전하여온 평양산원은 오늘 우리



류경안과종합병원



류경치과병원



문수기능회복원



고려의학종합병원

너성들의 《친정집》으로 다정히 불리우고있다.

옥류아동병원은 또 어떠한가. 이 병원의 치료 일지를 보면 대지를 확보할수 없다고 하던 신의 주시의 한 소녀가 기적적으로 일어서고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숨도 쉬기 힘들어하던 라선시의 한 어린이가 건강을 되찾은것과 같은 사실들이 수없이 기록되어있다.

류경치과병원에서도 전국의 수많은 영예군인들과 전쟁로병들, 평범한 근로자들이 치과질환을 깨끗이 털어버리고있다.

거기에 지난해 보건혁명의 원년을 상징하는 선진적인 의료봉사기지인 평양종합병원이 또다시 일떠서 인민들에게 종합적인 의료봉사를 제공하고있다.

진정 이 모든 성과는 인민의 건강증진을 최급선무, 가장 영예로운 혁명임무로 간주하고있는 우리 당만이 펼칠수 있는 현실이다.

하기에 평양종합병원건설착공소식이 전해진 후 세계사회교제망에는 이런 글이 올랐다.

《조선의 현실은 해당 나라들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가 아니면 자본을 움켜쥔 특권층을 위하여 복무하는가 하는것을 검증하는 기준으로 된다.》

오늘 이곳 의료봉사기지들은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 웃음을 지켜주는 곳으로 인민들의 생활속에 더욱 소중히 자리잡고있다.

글 김려은, 사진 김평



김판유병원

일화

위민천신의 나날에

친히 지어주신 이름

2013년 10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완공을 앞둔 아동병원건설장을 찾으시였다. 병원의 여러곳을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건설이 전반적으로 잘되였다고, 대단히 만족하다고 하시였다.

이날 아이들을 위한 또 하나의 건축물이 일떠선것이 그리도 만족하시여 보고 또 보시던 그이께서는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시더니 동행한 일군들에게 병원의 이름을 《옥류아동병원》이라고 하는것이 좋을것같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옥류라는 말은 구슬같이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른다는 뜻으로서 류경이라는 말과 함께 평양을 상징하는 좋은 말이라고, 병원의 명판을 아동병원의 특색이 살아나게 잘 만들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옥류아동병원》이라고 이름달아주신데는 우리 어린이들이 맑고 깨끗한 그 이름처럼 언제나 밝게 웃으며 행복하고 씩씩하게 자라기를 바라시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

강조하신 질문제

2017년 6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건설한 평양치과위생용품공장을 찾으시였다.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그이께서는 이 공장은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는 공장, 자신께서 대단히 중시하는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공장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이날 통합생산지령실에서 생산정상화와 제품의 질제고를 위한 품질관리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던 그이께서는 인민들이 이 공장제품을 찾게 하려면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명제품들과 당당히 경쟁할만한 상품들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하시며 이 공장에서 질높은 치과위생용품을 많이 생산하여야 인민들이 그 덕을 볼수 있다고 하시였다.

제품본들을 보시면서도 치과위생용품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는 제품보다 우수하여야 우리 사람들이 그것을 쓰자고 할것이라고 하시면서 제품의 질을 높일데 대하여 이르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치과위생용품들의 성분을 분석해보고 우리 제품들이 성분적으로도 그 제품들에 짝지지 않게 할데 대해서도 말씀하시였다.

약국판매원들에게 하신 당부

2022년 5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회의를 끝마치신 길로 수도의 만년약국을 돌아보신데 이어 장생약국도 찾으시였다.

약국에 들어서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뵈오며 판매원들이 소스라치듯 놀라면서 여기는 위험하다고, 들어오시면 안된다고 안타깝게 아뢰였지만 그이께서는 매대앞으로 다가가시여 판매원들에게 지금 인민들이 무슨 약을 많이 찾는지 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그에 대한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약품생산단위며 쓰는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이때 한 판매원이 참다 못해 터져나오는 기침을 하였다.

그이께서는 그에게 병을 앓았는데 무섭지 않은가고 물으시였다.

하나도 무섭지 않다고 대답올리는 판매원에게 그이께서는 판매원동무가 이번 전염병이 무섭지 않다고 하는데 어떻게 치료하는것이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되는가고, 주민들이 만약 열이 나서 동무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해설하겠는가 하는것을 실지 나에게 한번 설명해보라고 다심히 이르시였다.

판매원은 그이께 자기의 치료경험을 말씀드렸다.

평범한 한 판매원의 소박한 이야기를 다 들어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이 판매원동무의 설명을 들어보아도 우리는 이번 전염병을 능히 치료할수 있다고, 약국판매원들은 순전히 약품을 팔아주는 기계적인 동작만 하지 말고 주민들에게 이번 전염병에 대하여 과도하게 겁을 먹을 필요가 절대로 없다는것을 잘 해설선전해 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 * *

검진대장에 비낀 세쌍둥이들의 모습

옥류아동병원 어린이건강관리과에는 세쌍둥이 검진대장이 있다.

검진대장에는 태어나서부터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기 전까지 전국의 모든 세쌍둥이들의 키와 몸무게를 비롯한 모든 건강상태와 영양상태, 치료정형 등이 기록되어있다.

더우기 놀라운것은 이 내용이 해마다 갱신되는데 각급 병원의 소아전문과 의료집단이 학령전 세쌍둥이들에 대하여는 한해에 4번, 소학교와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의 세쌍둥이들에 대해서는 2번에 걸쳐 진행한 검진결과가 이 과에 종합되어 검진대장에 상세히 기록되는 것이다.

과에서는 전국의 모든 세쌍둥이들의 건강 지표들에 대하여 손금보듯이 알고있으며 그들의 성장과 건강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즉시 각 도소아병원들이나 옥류아동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고있다.

옥류아동병원만 보아도 검진조가 있는데 이들은 정기검진뿐 아니라 세쌍둥이들에게서 문제가 제기되면 즉시에 동원될수 있게 항시적으로 준비되어있다. 이런 검진조는 각 도소아병원들에도 있다.

얼마전에도 어린이건강관리과의 성원들은 검진조의 의료일군들과 함께 평양육아원에 있는 여러 세쌍둥이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하였다. 마침 이곳에 와있던 김봄순녀성은 키도 몸무게도 몰라보게 달라진 자식들을 보며 세쌍둥이들을 낳기만 하였지 다 나라에서 키워주고있다고, 그 사랑의 끝은 알수 없다고 하며 눈굽을 적시였다.

어린이건강관리과 성원들의 발자취는 평양시는 물론 조국땅 곳곳에 새겨져있다.

과장 백향옥은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고있는 사회주의제도가 있어 세쌍둥이들의 건강상태는 대단히 좋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세쌍둥이 어머니들이 국가적인 관심속에 받는 혜택과 태어난 후 자식들이 4kg이상 될 때까지 평양산원에서 돌보아주고있으며 각지에 훌륭히

일떠선 육아원들에서 4살이 될 때까지 세쌍둥이들을 말아 키워주고있는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금치 못해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우리는 검진대장을 펼쳐보았다. 보면볼수록 이 땅 그 어디에 살든 세상에 부럼없이 무럭무럭 자라는 세쌍둥이들의 행복한 모습이 비껴있는듯싶었다.

검진대장, 그것은 세쌍둥이들이 받아안은 사랑과 혜택의 기록장, 사회주의 우리 나라에만 있는 행복의 증서였다.

글 김일봉
사진 리영철



수정공예 《붉은 태양》

수정공예 《붉은 태양》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2012년 4월 중국에 살고있는 한 해외동포가 삼가 드린 선물이다.

보기 드문 큰 수정을 구입한 그는 전문가공사에서 고온로와 특수공법을 리용하여 수정체내의 잡질들을 제거한 다음 수정공예 《붉은 태양》을 성의껏 제작하였다.

《붉은 태양》을 형상한 수정체의 직경은 24cm이고 받침대의 높이는 9.5cm, 직경은 16.5cm이며 중량은 15kg이다.

선물은 온 누리에 찬연히 빛을 뿌리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절세의 위인상과 그이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라는 확신을 예술적으로 잘 형상하였다.



주체사상해설

세계에는 수많은 민족이 있으며 해당 민족의 력사와 문화, 생활풍습은 물론 그들이 처한 환경과 조건, 발전수준과 잠재력도 각이하다. 하지만 자기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고수하고 빛내이려는것은 그 어느 민족에게 있어서나 공통된 지향으로 되고있다.

자기 민족의 존엄과 명예를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고 자기 조국을 부강한 나라로 건설하고 빛내어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자존심은 주체사상에 근본바탕을 두고있다.

민족적자존심은 자기 민족이 남만 못지 않다는 자부심, 민족의 존엄을 귀중히 여기고 지키려는 마음이며 자체의 힘으로 나라와 민족의 부강발전을 이룩해나가려는 각오와 의지로 발현되는 고상한 사상감정이다.

주체사상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기 운명을 자기 힘으로 개척해나가자면 어떤 정신을 지니고 살아나가야 하는가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지향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 과학적세계관인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으며 우리 인민을 민족적자존심의 체현자들로 키워주시였다.

하여 우리 인민은 일제와 싸워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였고 세계《최강》을 자랑하는 미제침략자들을 쳐부시고 나라를 수호하였다. 그리고 전후 재더미우에서도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웠고 그

처럼 엄혹했던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이겨내고 사회주의와 민족적존엄을 지켜냈으며 적대세력들의 끊임없는 제재와 봉쇄책동을 짓부셔버리며 나라와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투쟁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왔다. 새 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우리 인민은 민족자존의 정신을 그 어떤 값진 재부외도 바꿀수 없는 생명으로, 무한대한 힘의 원천으로 더 높이 발양시켜 우리 국가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고 민족사에 있어본적 없는 번영기를 펼쳐가고있다.

오늘 우리 조국은 간고하고도 시련에 찬 길을 승리적으로 헤쳐나가고있을뿐 아니라 날이 갈수록 온 세상에 자기의 위용을 더욱 높이 떨치고있다

수도과 지방의 새 거리, 새 마을들과 미림승마구락부, 문수물놀이장, 과학기술전당, 원

산갈마해안관광지구, 평양종합병원을 비롯하여 조국땅에 일떠선 거창한 창조물들마다에 우리의 민족적자존심이 그대로 비껴있다.

이렇듯 우리의것에 대한 믿음과 애착, 우리의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 모든것을 우리식으로, 우리 힘으로 더욱 빛내이려는 자주정신으로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고도로 발양시키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자존심은 위대한 주체사상과 순간도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주체사상을 신념으로 간직한 우리 인민은 멀지 않은 앞날에 반드시 행복의 락원을 이 땅우에, 이 하늘아래 보란듯이 일떠세울것이다.

글 서광웅

주체사상과 민족적자존심

낮에는 적의 세상, 밤이면 우리 세상

(전호에 계속)

돈에 환장한 어떤 만주국군인은 다른 지방에 가서 물건을 럽가로 사다가 값을 몇배로 올려가지고 그 상점에 찾아와 자기대신 상품을 팔아달라고 부탁하곤 하였다. 군인이 물건을 가지고 장사질하는것이 알려지면 처벌도 받을수 없었으므로 부득불 상점을 리용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 군인은 상점주인과 결의형제를 무은 다음 그에게 탄알까지 팔아주었다. 상점주인은 탄알 한발에 25전씩 사서 혁명군에 넘겨주었는데 그 수량은 무려 5 000여발에 달하였다.

이것은 반유격구건설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실증해주는 하나의 단편적인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혁명군을 원호하는데서는 왕청남부지역에 창설된 럽수천자반유격구도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럽수천자의 혁명조직들에서는 수십차례에 걸쳐 해방지구에서 쌀 식량과 생활필수품들을 보내주었다.

우리는 그때 쌀, 피복, 성냥, 약품, 화약, 소금 등 유격구인민들의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물자의 많은 몫을 온성과 럽수천자의 혁명조직들을 통하여 해결하였다.

유격구에서 제일 귀한것은 소금이였다. 죽을 다섯술가락쯤 먹고는 인단알만한 소금을 한알씩 깨물고 억지로 간을 맞추는 형편이였다. 적들은 그때 유격구에 사는 생명들을 질식시키기 위하여 식량과 소금에 대한 통제를 무섭게 하였다. 가을이면 농민들이 한해농사를 지어 거두어들인

쌀을 자기네가 관리하는 집단부락의 창고에 고스란히 가져다넣게 하고 식구수에 따라 하루 동안 먹을만한 식량만 내주었다. 농민들에게 식량의 예비가 생기면 그 식량이 곧 항일유격대나 유격근거지인민들에게로 흘러간다는것을 알고있었기때문이였다.

적들은 소금의 류출을 막기 위하여 집사대라는 소금경찰대까지 조직해가지고 가옥들에 대한 수색을 무시로 하였다. 된장, 간장이 조금만 많아도 세금을 부과시키고 《불기채》라고 부르는 세모난 나무몽둥이로 무섭게 후려갈기였다.

우리는 1934년 가을에 근거지의 소금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2중대성원 30여명을 포함하여 수많은 군민들과 아동들로 구성된 공작대를 럽수천자에 파견하고 거기에 맡들까지 따라보내였다. 왕청에서 럽수천자까지는 왕복 200리길이였다.

사전에 우리의 통지를 받은 럽수천자의 혁명조직에서는 온성지하혁명조직과 남양운송부를 통해 넘겨받은 많은 량의 소금을 두만강변에 쌓아놓고 공작대를 맞이하였다.

공작대는 말 한필에 소금가마니를 두세짝씩 엮어가지고 셋째섬으로 무사히 돌아왔다. 나머지 소금은 한사람당 20~30kg씩 등짐으로 저서 유격근거지까지 날라왔다. 일부 소금은 라자구에 가서 밀가루와 바꾸어왔다.

량수천자조직이 우리에게 보내준 후방물자는 대부분 온성을 비롯한 룡읍지구에서 넘어온것이였다. 그곳 인민들은 우리 유격대와 유격근거지 인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의 많은 몫을 도문과 룡정일대에서 해결하여보내곤 하였다.

적들의 감시와 통제가 심한 국내에서는 일용필수품들을 대량적으로 구입할수 없었다. 국내조직들은 도문이나 룡정같은 상업지구들에 슬슬 건너가서 필요한 물건들을 사두었다가 제정된 통로를 통하여 항일근거지들에 보내주었다.

도문과 룡정은 사실상 우리의 후방을 담당한 믿음직한 근거지나 다름없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문이나 룡정이나 백초구와 같이 우리의 혁명조직들이 조밀하게 박혀있는 고장들은 함부로 다치지 않았다. 처음에 우리 동무들이 백초구를 한번 들이친 일이 있었는데 그 습격전투가 있는 직후 리광의 아버지가 연통해오기를 민족적 럽심이 있는 부자들을 통일전선에 끌어들여야 하겠는데 그들이 몹시 놀랐기때문에 후과가 좋지 않다고 하였다. 그다음부터 우리는 백초구와 같은 고장을 치지 않았다. 왕청과 그밖의 해방지구 군민들을 먹여살리는데서 룡읍일대의 반유격구는 실로 력사책에 대서특필해야 할 공적을 쌓아올리였다.

우리는 완전유격구와 반유격구외에도 적통치구역에서 유격대의 군사정치활동과 연락을 보장하기 위한 눈에 보이지 않는 활동거점들을 무수히 꾸려놓았다. 지하혁명조직들과 연락소들로 이루어진 이 활동거점들은 기동적이고 립시적인 성격을 띠는 유격근거지의 한 형태로서 룡정, 훈춘, 도문, 로두구, 백초구를 비롯한 적통치지역의 큰 도시들과 철도연선지대들에 많이 꾸려졌다.

간도와 국내에 반유격구를 창설하던 잊지 못할 나날들을 회상할 때마다 내 추억속에 가장 뚜렷이 떠오르는 인물은 오중화이다.

서대문형무소를 출옥하기 바쁘게 북행렬차에 몸을 실은 그는 도문에 건너오자 회막동근처에 있는 처가집에서 며칠간 정양을 하고는 인차 석현으로 돌아와 나를 찾아왔다.

오중화가 감옥살이를 끝내고 왕청으로 돌아온것은 남북만원정을 마치고 유격구에 발을 들여놓은지 얼마 안되는 나에게 있어서 커다란 기쁨으로 되고 위안으로 되였다.

그는 나를 만나기 바쁘게 큼직한 과업을 하나 맡겨달라고 하였다. 병색이 짙은 얼굴을 보아서 몇달 정양을 더 해야 할 형편이였는데 일거리를 달라고 자꾸 간청하는 바람에 가야허주변의 일부 지역들을 반유격구로 꾸려보라고 하였다.

오중화가 속해있는 제5구는 럽수천자, 도문, 연길, 백초구, 대두천 등 적의 주요《토벌》거점들과 잇닿아있었고 가야허에는 일본령사관 경찰분서까지 도사리고있었다. 1933년 정월초 류재구가 적의 습격을 받았고 그후에는 사수평이 두차례나 《토벌》을 당하였다.

오중화자신도 감옥에서 풀려나왔으나 적의 꼬리가 계속 달려있었다. 그러나 그는 과업을 받자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

우리가 오중화에게 가야허주변의 일부 지역들을 반유격구로 꾸려보라고 한것은 그 지역들이 적의 군사요충지들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또 적의 공격목표로 지목되고있는 사정과 관련되어있었다. 위험을 동반하는 어려운 과업이였으나 나는 오중화를 믿었다.

(다음호에 계속)



봄이 왔다.
한겨울의 추위가 사라지고 따뜻한 봄의 훈향이
불어오는 이 계절에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년년
이 맞이하는 뜻깊은 날이 있다.

3월 5일.
착취와 수난에 짓눌려 허리를 펴수 없었던 이
나라 농민들이 난생처음 자기 땅에 행복의 씨앗
을 뿌리던 그날로부터 어느덧 80돌기의 년륜이
새겨졌다.

돌이켜보면 해방된 땅에 처음으로 찾아온 봄은
참으로 환희로왔다.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
민을래야 믿을수 없는 너무도 놀라운 사실앞
에서 감격에 울고웃으며 《김일성장군 만세!》,
《토지개혁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던 이 나라
농민들이었다.

일제에게 빼앗겼던 나라를 찾아주시고 제땅
에서 마음껏 농사를 짓고싶어하던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주시신분은 바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시였다.

항일전의 나날 유격근거지의 농민들에게 땅을
무상으로 분여하도록 하여주신 그이께서는 조국에
개선하시여 농민이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식민지농업국가인 당시의 실정에 맞게 토지
개혁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
시였다.

그이께서는 1945년 10월 당중앙조직위원회
제1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토지개혁의 기본
방향을 밝혀주시고 농촌지역들에 나가시여
농민들과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땅에
대한 그들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 과정에 우리 나라 농촌실정에 맞는 토지의



몰수대상과 몰수 및 분배방법, 소작제도를 영원히
없애기 위한 방도들을 확정하신 후 1946년 3월
5일 토지개혁법령을 발표하시였다.

토지개혁법령의 발표는 우리 나라에서 농민들을
땅의 영원한 주인으로 만들고 착취와 압박의
근원으로 되어왔던 봉건적인 토지소유관계를
뿌리채 뽑아버린 력사적인 사변이였다.

김제원을 비롯한 이 나라의 많은 농민들이
자기들에게 땅을 무상으로 분여해준 당과 인민
정권에 대한 고마움에 감격하여 많은 량의 쌀을
나라에 애국미로 바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이
세세년년 행복을 누릴 터전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가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이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에 매여달리던 준엄한
고난의 시기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기
위한 불멸의 장정을 이어가시는 속에서도 농사
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려오시였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백두대지에 감자꽃
바다가 펼쳐졌고 대규모토지정리와 자연흐름식
물길공사가 진행되어 나라의 토지가 규격포진



토지개혁과 더불어 80년



토지분여를 위한 측량을 하고있다.



토지를 분여받는 농민들



분여받은 땅에 첫 씨앗을 뿌린다.



모내기를 하는 농민들



제땅에서 지은 남밭을 탈곡하는 농민들

으로 변모되고 농민들은 물걱정을 모르고 농사를 지었다.

오늘 조국땅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어 농촌이 변하고 지방이 변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농촌건설의 목표와 당면한 중심과업, 우리 당과 정부가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장기적인 농촌발전전략을 밝히시면서 농촌의 면모와 환경을 결정적으로 개변시키는것을 농촌건설에서의 최종과업으로 제기하시었다.

당의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실행을 위한 사업이 본격화되는 속에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가 일층 강화되었다.

웅대한 당의 대자연개조구상에 따라 조선서해안의 간석지들이 개간되고 각지에서 새땅찾기와 농경지복구사업이 활발히 벌어져 알곡재배면적이 늘어나고있다.

미루벌물길보수공사와 황주진등물길건설, 강령호담수화공사, 청천강-평남관개물길공사 등이 힘있게 추진되어 나라의 전반적지역 농장들에서 불리한 기후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수확고를 낼수 있게 되었다.

몇해사이에 농기계들의 가지수가 수십종으로 늘어나고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이 해마다 높아지고있다.

알곡생산구조를 대담하게 바꾸어 벼농사와 밀, 보리농사에로 전환된 후 알곡생산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하여 지난해에만도 많은 지역과 농장들에서 앞그루 밀, 보리농사를 잘 지은

것은 물론 뒤그루로 밭벼를 재배하여 좋은 결실을 거두었다.

농업부문먼거리협업체계, 관리정보체계가 확립됨으로써 모든 농장들의 영농과정과 농작물의 예상수확고 등을 정확히 장악하고 그에 기초하여 농사를 보다 과학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되었다.

과학농사열풍, 다수확경쟁열의가 더욱 고조되는 속에 해마다 알곡생산이 장성하고있으며 이전보다 더 많은 다수확농장, 다수확작업반, 다수확분조, 다수확자들이 배출되었다.

그뿐이 아니다. 어느 한계절, 한때가 아니라 사계절내내 농촌지역들에 새 마을들이 련이어 일떠서 평범한 농장원들이 현대적인 문화주택의 주인이 되었다.

그들은 자기 지역에서 화려한 예술공연무대도 펼치고 영화관람과 체육경기도 진행하면서 지난 시기의 생활방식, 생활습성 등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있다.

몇해사이에 우리 농촌에서 일어나고있는 이 모든 변화는 위대한 농촌혁명강령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입증하고있다.

이렇듯 토지개혁법령이 발표되던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나날을 돌이켜보며 이 땅의 소중함과 한층한층의 흙에 담겨진 사연을 다시금 안아보는 우리 인민의 마음은 진정 뜨거웁다.

인민의 꿈과 리상을 꽃피워가는 조선로동당의 령도에 의해 원대한 사회주의농촌건설구상은 가까운 앞날에 눈부신 현실로 펼쳐지게 될것이다.

글 연옥

조선식사회주의전면발전 리론의 특징에 대한 고찰 (1)

중국 료녕성 중조문화교류중심 부주임 김일

얼마전 나는 중국에서 조선의 TV편집물 《사회주의전면발전의 시대》를 시청하면서 큰 감명을 받았다.

조선전역이 격변의 시대를 맞아 창조와 혁신으로 들끓고있는 그 모습을 보니 참으로 감탄을 금할수 없었다. 한마디로 전면부흥으로 힘차게 내달리는 조선의 찬란한 미래가 보이는것같았다.

조선로동당의 80년 집권사를 돌이켜보면 말그대로 파란만장의 혁명적투쟁의 력사였고 수령의 사상으로 부단히 주체적혁명력량을 키워온 자랑찬 계승의 려정이었다. 수령과 인민대중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 세상에 끊임없이 조선식사회주의문명을 창조한 기적적인 대장정이었다.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어 나라를 세우시고 선군사상을 창시하시어 나라를 지키시고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으로 나라를 부강애로 이끌어나가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대한 혁명령도가 있었기에 조선은 드디어 전면발전, 전면부흥의 새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나는 주체철학을 배우고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조선의 사회주의전면발전의 새시대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고찰하며 탐구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자연히 초점을 모으지 않을수 없었다.

《COVID-19》로 큰 6년간이나 조선에 가보지 못하여 현실에 대한 료해가 많이 부족하였지만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하여 보고 듣고 느낀 점들을 정리하고 글로 적어보았다.

《사회적전면발전》의 개념에 대한 이해
《사회적전면발전》은 정치, 경제, 문화, 생태, 민생 등 사회의 모든 분야가 조화롭게 진보하고 전체적으로 향상되는 종합적인 개념으로서 발전의 균형성, 포용성, 지속가능성을 강조한다.

이는 단순한 경제성장을 넘어 사회전체의 질적 향상과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을 추구한다. 다시말하면 《사회적전면발전》은 효율과 공정, 현재와 미래, 물질과 정신을 모두 고려한 체계적인 진보로, 더욱 견고하고 활력있는 사회를 만드는것을 목표로 한다.

조선의 사회주의전면발전리론에는 《사회적전면발전》개념의 내용이 전부 포함되어있을뿐

아니라 선명한 인민성, 투쟁성, 방향성, 혁명성이 강조되어있다.

조선의 사회주의전면발전은 정치와 국방, 경제와 문화 등 사회의 모든 분야가 동시에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사회,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들도 다같이 변모되는 기적과 변혁의 사회, 사람들의 사상정신면에서 커다란 긍정적변화가 일어나 혁명적열의와 투쟁기세가 끊임없이 양양되는 약동의 사회, 사회주의전면부흥을 이룩하여 김정은강국의 존엄과 위상이 만방에 파시되는 전면적으로 발전된 나라를 건설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다음호에 계속)



철강재생산성과 더욱 확대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 철강재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강철증산의 방도를 제강시간의 단축에서 찾은 강철직장의 노동자들은 원료, 용해,련속조피 등 야금공정들에서 서로 련대하고 경쟁하며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용해공들은 1호, 2호 초고전력전기로를 비롯한 전기로들에서 원료장입을 기술적요구대로 진행하고 공정간맞물림을 치밀하게 하면서 차지마다 질높은 쇠물을 련속 끓여내고있다.

련속조피공정에서도 공정간협동을 강화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으로 더 많은 증산에비를 찾아내면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내화물직장의 노동자들은 내화물생산량을 늘이기 위해 분발하고있다. 이곳 직장에서는 교대가 교대를 도와주고 한사람이 두몫, 세몫의 일감을 맡아하면서 크링카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고있다.

혁신은 압연직장에서도 일어나고있다.

직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가열로보수작업을 짧은 시

간안에 결속함으로써 압연공정의 정상가동을 보장하고 일정계획을 수행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기업소에서는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도 계획성있게 추진해나가고있다.

지난해 기업소에서는 해당단위들과의 련계밑에 종전보다 많은 차재를 절약하면서도 수명을 2배이상 늘이고 질량도 5분의 1로 줄어든 유연련결모션을 개발하여 철강재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게 하였다.

당 제9차대회가 제시한 철강재생산목표수행을 위해 일터마다에서 혁신을 일으켜가는 기업소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의 배가된 노력으로 하여 철강재생산성과는 더욱 확대되고있다.

글 김대철
사진 류광혁



함주땅에 펼쳐지는 전변의 모습



조선동해안의 주요농업생산지인 함주군은 함주벌과 더불어 예로부터 쌀고장으로 알려졌다.

드넓은 땅을 가지고있는 고장이라고 해서 그 이름도 함주라고 불리워 온 이 고장에 자량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당의 지방발전정책에 의해 지난해 1월 현대적인 식료공장과 옷공장, 일용품공장이 일떠서 군의 경제발전과 주민들의 생활향상에서 뚜렷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우리는 얼마전 함주군에 대한 취재과정에 이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

먼저 우리가 찾은 곳은 함

주군식료공장이었다. 공장구내에 들어서니 한일광책임기사가 식료품을 가득 실은 차를 군안의 상점들로 떠나보내고있었다.

우리가 찾아온 취지를 듣고난 그는 반갑게 맞아주었다. 알고보니 그의 삼촌인 한영대가 중국 길림성에서 살고있었다. 그래서인지 동포들에게 고향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에게 대한 호감도 여간 아니었다.

우리는 그의 안내를 받으며 여러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았다. 어느 생산공정이나 만가동, 만부하를 걸고있었다.

《우리 고장의 원료를 리용하여 군주민들에게 공급할 식료품

들을 짱짱 생산하니 모두가 성수가 나서 일하고있습니다.》

한일광책임기사가 이렇게 말하며 우리를 포장실로 이끌었다. 이곳에서는 15종에 80여가지의 《함주》상표를 단 각종 당과류들과 기초식품들이 포장되고있었다.

제품들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우리에게 한일광은 공장에서 새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작업반호상간경쟁을 벌린 결과 제품의 가치수가 부쩍 늘어났다고 하였다.

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군주민들에게 맛있는 식료품들을 더 많이 보내주기 위해 진심을 바

쳐가는 이곳 종업원들의 마음을 읽을수 있었다.

이어 우리는 함주군일용품공장과 함주군옷공장도 돌아보았다.

기름정제로부터 제품포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공정이 자동화, 흐름선화되어있는 일용품공장의 빨래비누생산현장에서 우리는 한성민지배인을 만났다.

그의 말에 의하면 하루에도 박하향빨래비누를 비롯한 여러가지 빨래비누를 수천장정도 생산하고있는데 이런 속도로 나가면 월계획을 열흘이상 앞당겨 끝내는것은 문제없다고 한다.

한편 수지제품생산장에서는



군에서 생산한 식료품들을 사들고

함주군에 위치하고있는 련포온실농장은 280정보의 부지에 850여동의 수경 및 토양온실들과 1 000여세대의 살림집, 학교, 문화회관, 종합봉사시설 등이 구획별로 이채롭게 조화되어있다.



도에서 자체로 제작하였다는 수지관압출기에서 수지관이 연방 흘러나오고있었는데 참으로 볼만하였다. 문양과 색깔이 고운 갖가지 수지그릇들을 만들어내는 수지사출기의 작업모습도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수지제품작업반 반장 고금철은 갖가지 수지그릇들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높다고, 그래서 일할수록 성수가 난다고 하였다.

함주군옷공장의 종업원들도 군주민들로부터 주문받은 옷제품들을 만드느라 드바쁜 시간을 보내고있었다.

김명영지배인은 《인민들이 선호하는 옷제품을 만들자면 뛰니뛰니해도 기술기능수준이

높아야 합니다. 재봉공들모두가 애써 노력한 결과 지난 두달 남짓한 기간에만도 한급이상의 기술기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우리는 완성된 옷제품들을 눈여겨보았다. 현대미와 세련미가 살아나는 옷들을 입고 일터와 거리를 오가며 기쁨에 넘쳐있을 함주군주민들의 모습이 눈앞에 떠오르는것만 같았다.

지방공업공장들에 대한 취재를 마친 우리는 군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도로를 따라 즐비하게 늘어선 살림집들, 자기 공장의 공장들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구입하는 주민들로 흥성이는 상점들, 조선식합각지붕을 한 함주국수집 등을 사진에 담은 우리는 새롭게 면모를 일신한 함주고급중학교에도 들리었다.

한인표교장은 당의 교육중시 정책에 의해 교육사업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날로 높아져 지난해에만도 함주고급중학교를 비롯한 적지 않은 학교들의 교육조건과 환경이 일신되었다고

하였다.

홀륭히 꾸려진 실험실습실들과 교실들에서 마음껏 지식의 랍을 쌓아가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수록 그리고 학교와 고향에 대한 자랑을 구가한 리태은 학생의 글작품집을 보면서 함주군의 래일은 또 얼마나 밝아지랴 하는 생각이 우리의 뇌리에 갈마들었다.

밝은 래일을 향해가는 함주군의 모습은 이곳에서만 느낀것이 아니었다.

사계절 다수확자랑이 넘쳐나는 련포온실농장, 생산능력을 보다 확장한 군의 평풍덕염소목장, 과학농사의 덕을 보고 있는 동봉농장 등 우리가 찾은 모든 곳에서 변천의 일로를 향해가는 이 고장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참으로 나날이 일신되어가는 함주군이였다.

글 김지성
사진 리영철, 최원철

함주군 역사유적의 일부



중봉산성



지석마을고인돌무덤

아버지의 뒤를 이어



김만유병원 복부외과 의사 김무현(오른쪽)

김만유병원 복부외과 의사 김무현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의 모색이 무척 낮익은감을 느꼈다.

알고보니 그의 아버지는 15년 전까지만 해도 이 병원에서 복부외과 과장사업을 하였던 김창익이었다. 능란한 수술수기로

수많은 사람들을 소생시키고 후비들도 많이 키워낸 과장을 우리는 지면에 소개한바 있었다.

아버지를 신통히 닮은 김무현 의사를 마주하고보니 구면처럼 여겨졌다.

김무현이 평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김만유병원에 배치된것

은 2008년이였다.

그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지금 우리 과에서는 복부의 과령역에서 어려운 수술로 공인되고있는 담도암에 대한 수술방법을 연구하고있다. 너도 잡도리를 단단히 하거라. 복부외과는 공업으로 말하면 중공업과 같다고 할수 있다. 의사복을 입어서 의사가 아니라 환자를 살려야 의사라고 말할수 있다.》

김무현은 환자들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새삼스레 이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그는 아버지처럼 높은 수술수기를 지닌 의사가 되리라 마음먹었다.

여가시간이면 그는 아버지의 수술기록장을 보면서 여러 병에 따르는 수술방법들을 터득하였다.

이 과정에 여러 의사들과 협동하여 담도암에 대한 외과적수술지도서를 하나하나 완성하여 전국의 병원들에 도입하였다.

복부외과령역에서 제일 어려운 수술로 공인되어있는 원위부담관암에 대한 취두십이지장절제술을 완성할 때였다.

당시 이 수술은 시간이 오래고 환자들에게 주는 육체적 부담이 크며 성공률도 높지 못하였다.

그는 과의 유능한 의사들과 함께 협의를 진행하는것은 물론 선진적인 수술방법들을 서술

한 문헌들을 탐독하면서 연구를 거듭하였다. 때로는 수술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수술과정을 구상하기도 하였다.

노력에 비해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그는 아버지가 들려주던 말을 생각했다.

《무현아, 세상에 의사만큼 긍지스러운 직업이 없다. 사경에 처한 사람을 살려냈을 때의 기쁨은 글이나 말로 다 표현할수 없다. 아버지나 어머니 일본에서 자랄 때부터 의사가 되기를 희망했지만 이룰수 없었다. 그 소원은 조국에 와서야 성취될수 있었다. 온 가정이 의사인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천사가 되어야 한다.》

꾸준한 노력끝에 그는 수술시간을 앞당기는것은 물론 수술 후유증도 없는 치료방법을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할수 있었다.

지금 그는 김만유병원 복부외과에서 없어서는 안될 의사로 공인되고있으며 환자들로



환자치료에 정성을 바쳐가고있다.

부터 《우리 선생님》으로 불리우고있다.

많은 선배의사들은 그를 두고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있다.

언제인가 조국을 방문하였던 그의 외할머니는 환자들을 위해 애써 일하는 손자를 보며 무척

기뻐하였다고 한다.

오늘도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선진적인 수술방법을 도입하기 위해 헌신하고있다.

글 엄향심
사진 김영호



상식

편식하는 습관이 있는 어린이들을 보면 어떤 음식물에 치우치고 어떤 음식물에 대해서는 거절반응을 일으킨다. 이로 하여 영양섭취에서는 균형과탄이 생기게 된다.

어린이시기 성장발육과정에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현상은 대체로 영양의 불균형과 관련된다고 볼수 있다.

편식하면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과 같은 기본영양소뿐 아니라 광물질과 아연을 비롯한 미량원소, 비타민들이 부족되므로 어린이들의 성장 및 발육이 지연되고 건강

편식이 어떻게 나쁜가

에 일정한 장애를 조성한다.

고기와 물고기, 알, 젖제품을 먹지 않으면 몸안에서 단백질이 부족되고 남새와 과일을 먹지 않으면 비타민과 무기염들이 모자라며 여러가지 영양소가 부족되어 쉽게 병에 걸리게 된다.

편식하면 빈혈, 시력저하, 눈병 등에 걸릴수 있다.

그것은 아연이 눈에서 물질대사에 관여하는 효소들과 밀접하게 관계하기때문이다. 또한 크롬함량이 낮아지면 수정체와 망막의 삼투압이 변화되고 굴절도가 높아지면서

근시가 발생하게 되며 동이 부족하면 시망막색소의 변성이 일어나 안근이 손상되고 시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셀렌이 부족되면 근시안과 백내장이 생길수 있다.

편식을 하면 이밖에도 피부에 영향을 미치며 코피가 나오는 물이 높아진다고 한다.

편식하는 습관을 철저히 없애고 영양관리를 과학적으로 하여 미량원소를 균형적으로 섭취하여야 한다.

* * *

우리는 조선사람이다



나에게는 두 아들이 있다. 맏이는 19살, 막내는 6살인데 우리 말을 잘한다. 그러는 자식들을 볼 때면 생각이 깊어진다. 조선사람임을 증명하는 징표의 하나인 우리 말을 지키는가 마는가 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더구나 해외에서 사는 동포들인 경우에는 더하다. 언제인가 나는 어느한 동포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부모는 우리 말을 잘하는데 자식은 그리 잘하지 못하는것을 보게 되었다. 남의 일처럼 여겨지지 않았다. 나는 자식들이 어릴 때부터 해외에서 살아도 조국을 잊지 않도록 교양하였다. 첫걸음마를 떼고 말을 처음 입에 올릴 때부터 우리 말의 발음을 하나하나 배워주었다. 그리고 조국의 출판물들을 보도록 하였으며 우리 말로 이야기하고

일기도 쓰도록 하였다. 처음에는 잘 적응되지 않았지만 차츰 자식들은 익숙되어 갔다. 이제는 두 아들이 다 우리 말을 류창하게 하고있으며 할머니,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을 잘하고있다. 한번은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맏이인 신도를 데리고갔었는데 그곳에 와있던 부총령사동지는 우리 말을 잘하는 아들을 보고 누구의 자식인가고 물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제1부의장사업을 하시는 시어머님이 신도를 보며 손자라고 하였고 나도 재차 아들이라고 대답하였다. 부총령사동지는 시어머님에게 손자를 잘 키웠다고, 대끝에서 대가 나온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날 맏아들은 처음으로 행사에 참가하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의 모습에서 자기가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가를 새삼스럽게 느끼었다고 일기에 썼다. 이렇게 우리 아들은 나날이 몸도 마음도 자랐다. 나는 맏이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 대학문제에 많은 신경을 썼다. 대체로 부모들은 자식들을 자기 품에서 떼놓으려고 하지 않는다. 나자신도 같다. 그렇지만 나는 신도가 조국에 가서 공부하기를 바랐다. 왜냐하면 조국에서 공부하면 우리 나라의 력사와 문화, 지리에 대하여 더 잘 아는것은 물론 체험하는바가 클것이며 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모들이 왜 힘

들고 어려워도 애국사업을 해오고있는가를 깨닫게 될수 있기때문이었다. 나의 마음을 다 읽었는지 신도는 《어머니, 나의 몸에도 조선사람의 피가 흐르고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조국에 가서 공부하겠다고 하였다. 얼마나 대견하던지... 현재 맏이는 김형직사범대학 어문학부에서 공부하고있다. 얼마나 학습에 전념하는지 부모생각을 아예 잊은것같다. 지난해 제1차 재중조선공민자녀방문단으로 조국을 방문하였을 때 신도의 학습에 대하여 알아보니 선생님들은 그가 공부도 잘하고 동무들사이의 관계도 좋다고 이야기하였다. 부모슬하를 떠난 자식이 조국에서 공부를 잘하고있다고 하니 가슴이 뿌듯해지였다. 그렇다. 해외에 살아도 우리는 조선사람이다. 세월이 흐르고 대가 열백번 바뀐다고 해도 이것은 변할수도 바뀔수도 없다. 부모들이 걸은 길을 자식들이 뒤를 이어야 하고 그 후손들도 따라야 한다고 본다. 나는 나의 둘째아들도 맏아들처럼 키우려고 한다. 뿐만아니라 재중조선인청년협회 회원들도 부모들의 뜻을 이어 조국을 위한 한길만을 걸도록 적극 도와주겠다.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위원 리설희

인상기

새 힘이 솟는다

지난해 나는 조선로동당창건 80돛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충성의 편지이어달리기대표단 단장으로 조국을 방문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삼가 올리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충성의 편지를 정히 전달하는 의식에 참가한 나의 마음은 이름할수 없는 걱정으로 세차게 높뛰였다. 우리 대표단성원들의 심정도 나와 다름바 없었으리라 본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이날을 그리며 모두가 한마음으로 달려왔기때문이다. 우리 대표단성원들중에는 재중조선인청년협회 성원들과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회원들, 조국에 처음으로 오는 동포들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모두가 《김정은 결사옹위!》의 구호를 소리높이 부르며 달리고달렸다. 나이가 많은 동포들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왜서인지 이 구호를 웨치면 절로 새 힘이 샘솟는다고. 정말이다. 나자신도 이것을 체험하였고 대표단성원으로 함께 동행하였던 우리 집사람도 온몸으로 느꼈다고 한다. 조국과 멀리 떨어져사는 우리 동포들에게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에 대한 신뢰심이 암반처럼 자리잡고있다. 그것은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다. 세월이 흐를수록, 세대가



바뀔수록 이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사무국장 동주봉

자랑으로, 긍지로 여긴다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가리켜 일심단결의 나라라고 말하고있다.

나는 그것을 조선로동당창건 80돛을 맞으며 진행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보면서 더 깊이 느끼게 되었다. 수많은 출연자들이 참가하였지만 그들은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멋진 장면들을 펼쳐보이였다. 살아있는 영사막과도 같은 배경대는 관람자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군 하였다. 정말 놀라웠다. 바로 이런것을 두고 대오는 천만이어도 마음은 하나라고 하는것같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생동한

화폭을 펼쳐놓는 이런 장면은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로 흉내낼수도 연출할수도 없는것이다. 일심단결, 이 말은 조국에서만 들을수 있고 조국에만 어울리는 말이다. 예로부터 싸리나무 한가치는 꺾기 쉽지만 아릅드리나무는 꺾지 못한다고 하였다. 단결된 힘을 당할자 세상에 없다. 나는 이런 조국을 둔것을 자랑으로, 긍지로 여긴다.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위원 방영선

사랑과 존경 속에

-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는 동포 여성들이 많다.

이들중에는 머리흰 로세대 동포 여성들도 있고 세세대 동포여성들도 있다. 가정의 주부, 자식들의 어머니로서 마음을 쓰고 해야 할 일이 많지만 동포조직을 위한 사업에 언제나 남먼저 나서는 이들이다.

동포조직을 위해 때로는 굳센 기둥이 되어주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밝은 웃음으로 활력을 주기도 하는 이들을 누구나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다.

하기에 동포들은 한자리에 모일 때면 《사랑하시라》, 《우리 집 사람》,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등 조국의 노래를 부르며 동포여성들을 축하해주고 있다.

글 변진혁, 사진 김성철



재중조선인여성협회에서는 동포여성들에게 조선녀성의 자부심을 북돋아 주기 위한 사업을 벌려나가고 있다.



축하를 받고있는 여성공민들



길림지구협회 길림시지부에서



료녕지구협회 단둥시지부에서



료녕지구협회 심양시지부에서



중국 심양주제 우리 나라 총령사(가운데)가 여러 지구협회의 여성대표들을 축하해주고 있다.

돌격대장들의 만민사랑을

글 변진희
사진 김영호

그가 찾은 행복

함경남도 신포시에 가면 사람들 누구나 존경하는 여성이 있다. 그는 신포시건물보수사업소 노동자 리춘화이다. 10여년전까지만 해도 그는 평범한 가정주부였다. 당시 그

가 바란것은 남편을 잘 내세우고 자식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우는것이였다. 그는 이것이 여성의 보람이고 가정의 행복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던 그가 자신을 돌이켜보게 된것은 10여년전 큰물피해를 입었던 라선시 선봉지구 백학동(당시)에 사회주의선경마을이 솟아났을 때였다. 나라에서 재난을 당한 인민들에게 새 살림집을 무상으로 안겨준 소식이 그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후 그는 새로운 결심을 품고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시의 건물보수사업소에 들어가 일하기 시작하였다. 신포시유치원 건설을 지원하는것으로 시작된 그의 걸음은 여러 건설장들과

단위들로 이어졌다.

2024년에만도 그는 두 딸과 함께 가정에서 마련한 많은 지원물자들을 중요건설장들에 보내주었다.

결코 순탄했던것은 아니다. 차를 타고 수백리길을 오가기도 하였고 로상에서 밤을 보낼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10여년 세월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 말건 변함없이 애국의 길을 걸어왔다.

지원일지를 펼쳐놓고 갔던 곳을 기록하고 가야 할 곳을 선정하는것은 이 가정특유의 일과로 되었다. 한장두장 쌓이는 지원증서들은 리춘화가정의 행복, 이들의 자부심이기도 하다.

2024년에 사회주의애국공로자의 영예를 지닌 그는 오늘도 애국의 길을 걷고있다.



돌격대제복과 함께 14년

속도전청년돌격대관리국 골재생산대는 지난 시기 중요대상건설장들에 많은 골재를 생산보장하였다.

이러한 성과속에는 골재생산대 부대장 신영희의 노력이 깃들어있다. 2011년에 생산대의 일군으로 임명된 그는 골재생산을 늘이는 문제를 놓고 적지 않게 고심하였다. 당시까지만 해도 생산대의 물질기술적토대는 시원치 않았다. 하루

가 다르게 늘어나는 수요에 맞게 골재생산을 따라세우자면 생산장을 보다 넓은 곳으로 옮기는것과 함께 설비와 배들도 더 마련해야 하였다. 조건은 어려웠지만 그는 돌격대원들과 함께 일판을 통이 크게 벌려 몇년후 생산대의 면모를 일신시켰고 해당 분야의 연구사, 기술자들과 지혜를 합쳐 부선과 준철선, 자동부립선을 건조하였다. 물질기술적토대를 보다 확대한 그는 계획된 골

재를 원만히 생산보장함으로써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전위거리, 화성지구 살림집건설 등에서 관리국이 맡은 대상건설을 제날자에 끝내는 데 이바지하였다.

평안북도의 큰물피해복구때에도 그는 골재보장이자 살림집건설속도라는것을 명심하고 직접 현지를 밟아본데 기초하여 골재장을 전개하였으며 건설이 시작되는 날부터 완공의 그날까지 앞장에서 돌격대원들을 이끌어왔다.

이 나날 그는 사람들로부터 《전개력있는 돌격대지휘관》, 《이악한 녀성일군》, 《돌격대원들의 어머니》 등으로 불리웠다.

10여년을 가정부인의 몸으로 돌격대의 제복을 입고 백수십명이나 되는 대원들과 함께 일하며 생활한다는것은 결코 조련치 않다.

신영희는 《우리가 보장한 골재로 일떠선 창조물들을 볼 때면 남다른 긍지가 가슴에 넘쳐남



니다. 아마 그 멧에 내가 오늘까지 돌격대제복을 입고있는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였다.

항유보다 공민적의무를

중구역 동안1동 70인민반에 는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사업에 헌신해가고있는 한태을녀성이 있다.

여러해도 아니고 30여년을 그는 탄광, 광산, 농촌 등의 많은 단위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해오고있다.

지난해 그는 알곡증산으로 나라의 부흥발전에 이바지할 마음을 안고 강남군 마정농장을 지원하였다. 리에 나가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을 만나 무엇이 제일 걸리는가를 알아본 그는 그것이 크든작든 적극적으로 도와나섰다. 그가 농장에 지원한 많은 량의 영농물자는 년초부터 농장원들의 열의를 북돋아주었다.

화성지구의 살림집건설에 참가한 건설자들과 함께 일도 하

느라 힘겨웠지만 그는 매일이 다실이 농장에 나가 벼포기들의 생육상태를 관찰하기도 하였다.

언제나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항상 앞선 한태을녀성이다.

어느해인가 로동신문에 사회주의애국탄증산운동의 불길을 지퍼올린 자강도공급탄광 탄부들에 대한 기사가 실렸을 때였다. 탄부들이 누구보다 먼저 대중적인 증산운동의 불길을 지핀데 대한 이야기는 그의 가슴을 흔들었다. 애국탄증산운동을 호소한 탄부들과 그 가족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주고싶어 그는 많은 지원물자를 마련해가지고 탄광을 찾아갔다. 그후에도 그는 여러 차례에 걸쳐 탄부들과 그 가족들에게 많은 지원품을 보내주었다.

이렇게 사회와 집단을 위해



수많은 일을 찾아하고도 그는 그 모든것을 평범하게 여기고 있다.

그에게 사람들이 가정살림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는가고 권고할 때면 이렇게 대답하군 한다.

《나라가 있고야 가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태를 묻고 사는 사람이라면 항유보다 공민적의무를 먼저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다른 공지를 안고



김정숙평양제사공장 노동자 합숙 306호실의 주인들은 1직장 1작업반에서 일하는 조사공 처녀들이다.

태어난 곳도 나이도 성격도 서로 다른 이 처녀들은 일터의 소문난 혁신자들이다.

호실에서는 서로 아껴주고 위 해주는 마음이 극진하여 자매와 같이 다정한 그들이지만 일터에서는 누구라없이 쫓싸게 일손을 다그쳐 명주실을 뽑는 경쟁 자들이다.

지난해 2년분, 3년분인민경 제계획을 넘쳐 수행한 혁신자 들속에는 이 호실의 처녀들도 있다.

일잘하고 생기발랄한 처녀들

의 생활은 언제나 희열과 량만 으로 가득차있다.

하루일을 마친 저녁이면 이들은 합숙의 조리실습장에서 자기 들의 구미에 맞게 직접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불밝은 창가에 모여앉아 로동의 기쁨을 노래 에 담기도 한다. 명절일과 휴식 날에는 운동실과 진달래원에서 탁구와 윗놀이, 수영 등으로 시 간을 보내기도 하는데 어느 종 목에서도 지려 하지 않는 이악 쟁이들이다.

이들의 가슴마다에는 306호 실에서 생활한다는 남다른 공 지와 자부심이 차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 훌륭한

로동자합숙을 일떠세우도록 조 치를 취해주시고 완공후에는 몸소 이곳을 찾으시여 306호실 에도 들려주시었다.

조사공처녀들은 생활에 사소 한 불편이 있을세라 세심히 보 살펴주신 그이의 사랑을 세월이 흘러도 잊지 못하고있다.

그 사랑에 높은 생산실적으로 보답해갈 마음을 안고 처녀들은 노력하고있다.

후날 가정을 이루고 합숙을 떠난다고 해도 306호실에서 생 활한 남다른 공지와 자부심은 그들의 가슴속에 한생 교이 간 직될것이다.

글 러해
사진 김영호



록색기술개발에 힘을 넣어

국가과학원 자연에네르기연구소에서 새로운 메탄가스생산 및 리용기술을 연구도입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 시기 메탄가스생산에서는 질소와 탄소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곡식짚을 비롯한 농부산물과 각종 배설물을 1:5의 비율로 혼합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고있었다. 그런가 하면 메탄가스생산의 공업화를 실현한 나라들에서는 원료로 에네르기식물을 리용하고있다.

연구소에서는 문헌연구와 현지료해를 구체적으로 진행하는데 기초하여 순수 곡식짚을 리용한 메탄가스생산과 리용기술을 연구도입하는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사실 3년전 연구에 착수하였을 때 어려운 과학기술적문제들이 수없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서로의 지혜를 합쳐가며 연구를 거듭해나갔다.

이 과정에 메탄가스발생률을 제고할수 있는 효과적인 발효방법과 가스생산공정의 해당 기술적지표들이 김동춘, 김광만 연구사들에 의해 새롭게 정해지는데 이어 여러 연구사들도 곡식짚을 발효시킬 때 분해률이 낮고 분해기일이 길어지는것을 극복할수 있는 전처리기술과 발효촉진제, 첨가제를 개발하였다. 특히 황길성실장은 메탄가스의 순도를 높일수 있도록 해당계통을 독특하게 구성하여 가스청정의 실수률을 높이는 동시에 유기질비료생산도 진행할수 있게 하였다. 이외에도 연소기구의 노즐구조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연구과제를 빠른 속도로 진척시킬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그로부터 1년만에 연구사들은 마침내 순수 곡식짚으로 메탄가스를 생산할수 있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여 농촌

지역의 살림집들에서 메탄가스에 의한 취사와 난방보장을 실현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연구사들은 메탄가스화에 의한 전력생산체계를 확립하는데서도 뚜렷한 진전을 가져왔다.

진길남, 고주영, 한세일을 비롯한 연구사들은 교반기설치각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입배출관의 밀폐방법과 종균을 원료에 혼합하는 방안 등을 확정함으로써 오수정화장들에서 오니의 메탄가스화에 의한 전력생산체계를 확립할수 있게 하였다. 이와 함께 연구사들은 생산된 전력을 국가전력계통과 동기시키는 기술도 개발하였다.

성과에 자만을 모르는 연구사들은 식료공장들에서 버려지던 공업폐수를 가지고 메탄가스를 생산하여 난알건조기와 룬전기재들의 연료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과학기술적성과들도 내놓았다.

황해북도농촌경리위원회 은정축산농장과 평양시의 여러 오수정화장 등에 도입되어 그 우월성이 입증된 메탄가스생산 및 리용기술은 록색기술의 하나로 지난해에 진행된 제38차 전국과학기술축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글 김지성
사진 리철



소년힘장사

지난해 7월에 진행된 제61차 전국체육학교체육경기대회 남자력기 94kg이상급경기에서 전문가들과 감독들의 초점을 모은 소년이 있었다.

그가 바로 락랑구역과외체육학교 학생인 김금원이다.

경기에서 그는 끌어올리기, 추켜올리기, 종합에서 모두 1위를 하였는데 2위를 한 선수보다 끌어올리기에서는 10kg, 추켜올리기에서는 20kg 더 들어올림으로써 압도적인 실력차이로 제일 많은 몸무게급의 우승자가 되었다.

구간봉을 어렵지 않게 들어올리는 그의 경기를 보면서 전문가들은 육체적조건이 좋고 경기의식이 높은 전도가 기대되는 력기선수후비라고 평가하였다.

어려서부터 남달리 체격이 큰 그를 체육교원들은 저마끔 욕심나하였다. 그러던 그는 력기지도교원인 오경진에 의해 력기종목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훈련장에서 자기보다 키도 몸무게도 작은 선수들이 구간봉을 척척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김금원은 자기도 얼마든지 할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력기를 시작해서 2년만에 여러 경기들에

출전하여 도합 3개의 은메달을 쟁취하였다.

경기과정은 그에게 자신감을 안겨주었다.

나이가 들면서 금원의 몸무게는 20kg이나 늘어났다. 그럴수록 훈련의 강도는 더 높아졌다.

자기 몸무게보다 훨씬 무거운 구간봉을 하루에도 수십번 들어올리며 금원은 기술동작을 익혀나갔고 동작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훈련을 꾸준히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 그는 다리힘을 더 세게 키웠고 체기속도가 빠른 자기의 고유한 특기를 소유할수 있었다.

그의 기록은 계속 갱신되어갔으며 오늘날에는 중량급우승자로 당당히 나서게 되었다

앞으로의 꿈에 대해 묻는 기자에게 소년힘장사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력을 하기 전까지 나는 예술인이 될 꿈을 꾸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 가슴속에는 오직 하나의 꿈만이 존재합니다. 지난해 국제력기무대를 조선판으로 만들어놓은 형님, 누나들처럼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는 력기강자가 되는것입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 나는 계속 노력할것입니다.》

글 김성경, 사진 김강무



생물집에네르기에 의한 전국적인 메탄가스도입과 관련한 기술적문제를 토의하고있다.

지능계발에 도움을 주는

상명조립식놀이감

상명무역회사 보통강상명놀이감생산소에서 지능계발용조립식놀이감들을 많이 생산하고있다.

놀이감들은 우리 나라의 문화와 력사, 군사, 생활 등 다양한 주제를 담고있다.

《홍길동》, 《소년장수》,

《전투록격기》, 《유인우주비행선》, 《보병전투차》, 《교통안전지휘》, 《상업거리》 등 《상명》조립식놀이감은 수십가지나 된다.

동문소학교 교원 박영순은 보통 1 000개가 넘는 조각들로 각이한 모형들을 조립할수 있는

놀이감들을 학생들의 과외학습에 리용해본 결과 그들의 지적 능력과 공간인식능력이 보다 높아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첨단정보기술의 집합체인 로보트교육에서도 조립식놀이감의 놀이방식이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하였다.

놀이감의 조각수가 많을수록, 반복하여 조립하는 과정에 조립시간이 줄어들수록 아이들의 기억력과 지능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이 교육자들의 견해이다.

생산소에서 개발한 조선예술영화 《홍길동》의 장면을 재현

한 놀이감 《홍길동》, 만화영화 《소년장수》의 련재편을 이야기줄거리로 엮어 만든 놀이감 《소년장수》는 매 인물의 형상이 생동하고 여러가지 모형들의 다양한 배치로 하여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의 호감도 자아내고있다.

지난해에 진행된 경공업제품 전시회 《경공업발전-2025》에서 《상명》조립식놀이감에 금메달이 수여되었다.

20대의 젊고 실력있는 성원들로 꾸려진 생산소에서는 아이들과 학생들의 인기를 끌면서도 지능계발에 도움을 주는 제품들을 개발생산하고있다.

항상 현실속에 들어가 아이들과 학생들이 좋아하는 영화나 놀이, 인기있는 생활의 단면들을 찾아 설계에 반영하기



새 조립식놀이감에 대한 도의를 진행하고있다.

위한 이곳 제작자들의 노력은 《상명》조립식놀이감의 인기를 높여주는 중요한 고리로 되고있다.

부단한 사색으로 새 제품개발에 매진하고있는 이곳 집단

은 오늘 국내의 조립식놀이감 생산에서 주도적지위를 차지하고있다.

글 김려은
사진 리명



보통강상명놀이감생산소에서 생산한 조립식놀이감들은 어린이들이 사랑하는 놀이감들중의 하나이다.

상 식

독소를 제거하는 아침된장국

된장은 우리 인민들이 식생활에 즐겨 리용하는 기초식품이다. 된장에는 단백질, 탄수화물, 기름질, 팜물질과 비타민 그리고 사람들이 반드시 섭취해야 할 아미노산이 들어있다.

특히 아침된장국은 몸의 독소를 제거해주는 좋은 음식의 하나이다.

된장의 성분은 지방분을 씻어주고 뱃에 남은 균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한다.

된장속에 함유되어있는 레시틴은 몸안에 있는 여분의 지방을 녹여주고 섬유질은 뱃을 청소해주는 일을 한다.

된장속에 들어있는 비타민은 니코틴의 독성성분도 제거한다.

* * *



축구가정



리금숙

얼마전 저녁 우리는 4.25선수단 여자축구감독 리금숙의 가정을 찾았다.

우리가 보통강구역 보통강 2동 54인민반 16층 1호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니 리금숙

의 시아버지 박정훈로인이 며느리로부터 기자선생들이 온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반갑게 맞아주었다.

로인은 아들과 며느리가 인차 도착할것이라면서 우리를 안으로 이끌었다.

리금숙의 집은 눈짐작으로 보아도 백수십㎡에 달하였다.

넒직한 공동살림방에 들어서니 한 벽면에는 금숙감독이 남편과 찍은 가족사진들뿐 아니라 금메달들, 상장들과 함께 명예칭호증서들도 걸려있어 체육인가정이라는것이 한눈에 안겨왔다.

우리가 그것을 유심히 보며 체육인부부의 어제와 오늘을 그려보고있는데 그들이 방안에 들어서는데는것이였다.

이미 여러 기회에 낯을 익히었던 금숙감독은 우리와 인사를 나누기 바쁘게 2.8체육단 축구학교 교원 겸 감독으로 사업하는 남편 박충혁을 소개했다.



충혁의 얼굴에는 유명한 체육인녀성과 가정을 이루고 사는 남다른 기쁨이 실려있는듯싶었다.

《사람들은 내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부러워한답니다. 나를 성공과 행복의 절정에 내세워준 품은 자그마한 재능의 싹을 찾아 키워준 조국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금숙의 이야기는 조용히 방안을 울리였다.

함경남도 함흥시의 로동자 가정에서 출생한 금숙은 현재의 사포구역과외체육학교에서 축구기술을 연마한 후 4.25선수단으로 소환되였다. 몇해사이에 국내경기들에서 두각을 나

리금숙의 시아버지 박정훈(오른쪽으로부터 첫번째)은 지난 시기 우리나라 축구팀 주장으로 여러 국제경기들에 참가하였다. ▶

남편 박충혁은 2.8체육단 축구학교 교원 겸 감독으로 사업하고 있다. ▼



로인의 말을 들으며 그들부부는 흘러간 옛시절을 감회깊이 추억하였다.

이윽고 방안에 화기에애한 분위기가 감돌고있는데 2.8체육단 축구학교에 다니는 금숙의 아들이 방안으로 들어섰다.

이동훈련기지에서 오래간만에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둘러싸고 그들가정에는 밤깊도록 기쁨의 웃음소리가 그칠줄몰랐다.

우리는 행복에 넘친 축구가정의 밝은 래일을 축복하며 집을 나섰다.

글 연옥
사진 김영호

타낸 그는 국가대표팀에 망라되어 자기의 뛰어난 축구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공격수이며 머리발기명수인 그는 제13차 아시아여자축구선수권대회 우리 나라 팀과 일본팀간의 결승경기에서 결정적인 골을 넣은것을 비롯하여 많은 국제경기들에서 우리 팀이 승리를 쟁취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선수생활기간 금숙은 120여차례의 국제경기들에서 팀의 공격수, 주장으로 활약하면서 100여개의 골을 넣고 우승컵과 최우수선수상, 최고득점자상들을 받았으며 공훈체육인, 인민체육인으로 자라났다.

그는 국제축구연맹 2024년 20살미만 여자월드컵경기대회에서 우리 나라 여자축구팀 감독의 중임을 맡아 수행한 공로로 지난해 김정일상을 수여받았으며 현재 살고있는 보통강기술의 새집도 배정받았다.

금숙의 곁에 조용히 앉아 이야기를 듣고있던 박정훈로인이 가정의 자랑거리가 또 있다고 하는것이였다.

귀가 솔깃해진 우리에게 로인은 손가락들을 차례차례 꼽아가면서 자기의 형제, 자식들과 며느리들, 손주들에다가 금숙이네 형제들까지 셈에 다 넣으면 가족성원들중 축구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열명도 훨씬 넘는다고 하였다.

이윽하여 그는 맏아들인 충혁이가 금숙이를 안해로 맞아들이던 때의 일들을 구수하게 이야기해주었다.



국제경기들의 일부 장면들



리금숙의 아들 박권흥

누구나 기다리는 무대

중앙예술경제선전대는 2018년에 창립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공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선전대에는 인민들의 절찬과 사랑을 받고있는 재능있는 화술 배우들이 많다.

첫손가락에 꼽아야 할 배우는 인민배우 리순홍이다. 리순홍배우라고 하면 아이들까지 먼 저 얼굴에 웃음을 짓는다. 그만큼 그는 관중에게 웃음을 주는 배우이다. 늘 사색하고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쓰는 입말어휘 하나도 놓치지 않고 수첩에 적어두는 그는 직접 대본을 쓰고 무대에 출연한다.

《때늦은 후회》, 《웃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다》를 비롯하여 관중들속에서 인기있는 작품들은 대개가 그가 창작

한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그가 출연한 만담들을 몸소 보아주시고 만담을 제일 잘한다고 치하시였다.

리순홍배우에 못지 않게 김철남, 전석철배우들도 자기식의 특색있는 연기로 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있다.

김철남배우는 조선예술영화들인 《강호영》, 《황철나무중대》, 《우리의 레일은 푸르다》에서 주인공역을 손색없이 수행한 전적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관중들이 누구나 좋아한다. 특히 대상인물에 따라 연기를 구수하게 하면서도 각이한 사람들의 말투를 그대로 형상하는것으로 하여 박수갈채를 받고있다.

화술조 조장인 전석철배우는

무대에 나서기만 해도 웃음의 파도가 장내에 일어번진다. 그를 보면 누구나 재담 《열린 문닫긴 문》을 생각한다.

과학기술학습을 잘할데 대한 내용을 웃음속에 해학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은 전석철배우가 창작한것이다. 어느한 신문에 실린 자료를 보고 단숨에 창작한 작품은 어휘 하나하나가 웃음을 낳는것으로 하여 관중들에게서 대절찬을 받았다.

관찰력이 높고 론리정연한 그는 매번 관중의 심리를 명중하는 작품들만 내놓고있다.

재담 《뿔뿔이와 삼녀》에서 삼녀역을 수행한 공훈배우 김영심과 조선예술영화 《도라지꽃》에서 팔랭이치녀역을 형상한 배우도 관중들의 사랑을 받고있다.

함경남도 북청군에 살고있는 리정심녀성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배우들의 연기도 그러하지만 무대에 올리는 작품 하나하나가 다 생활을 담은 작품들이다.》라고 하였다.

관중의 평가그대로 이들이 무대에 올리는 작품들은 생활적이고 진실하다.

지난해 평양시의 중구역에 위치한 천리마문화회관에서 중앙예술경제선전대의 화술소품공연이 진행되였을 때 극장은 초만원 을 이루었다.

첫선을 보인 재담 《한알》과 만담 《절약과 량심》은 관중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였다.

재담 《우리 집 자랑》은 관람자들 누구나 한바탕 웃고 눈굽을 적시게 하였다. 새집에 이사한 부부가 학교에 다니는 자식이 《우리 집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글짓기를 하는것을 보면서 국가로부터 자기들이 받아안은 가지가지의 혜택들을 인상적인 연기로 펼쳐보이였다.

관중들의 끊임줄 모르는 박수갈채와 재청속에 공연의 막은 쉽게 내려지지 않고있다.

화술조 조장인 전석철배우는 이렇게 말하였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웃음을 준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날이 향상되

는 우리의 생활이 소재가 되고 웃음을 낳게 합니다. 우리는 그 생활을 그대로 무대에 올렸을뿐입니다.》

관중의 기대를 온몸으로 느끼며 이곳 배우들은 보다 새로운 것, 보다 유쾌한 기쁨을 안겨주기 위해 오늘도 창조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글 임향심
사진 김영호



중앙예술경제선전대의 공연은 우리 인민들모두가 좋아하고 사랑하고있다.



우리 생활속의 양덕온천문화

동포여러분에게 조국에 오시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냐고 누가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 할런지 무척 궁금합니다.

마식령스키장이나 배개봉스키장도 좋지만 양덕 온천문화휴양지 또한 이상적인 곳으로 꼽히게 될것입니다.

산 좋고 물 맑은 우리 나라의 많은 지역에서는 건강에 좋은 온천과 약수가 솟아오르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오랜 옛날부터 온천과 약수를 생활에 적극 리용하여오는 과정에 자기의 고유한 문화를 창조하여왔습니다.

그가운데는 온천문화도 있습니다.



이번호에 우리는 2024년에 국가비물질문화 유산으로 등록된 양덕온천문화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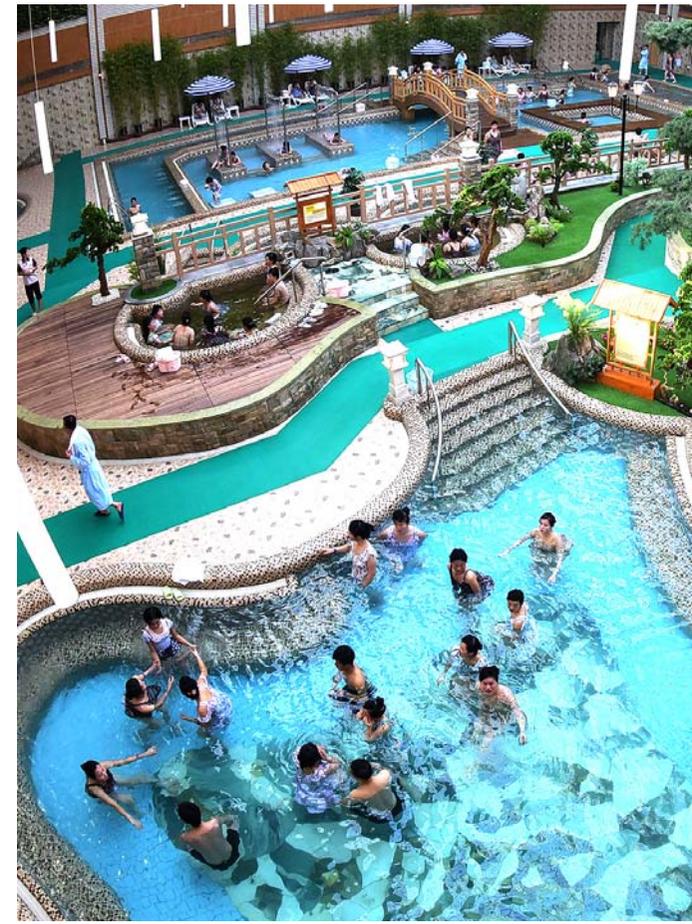
온천문화란 온천이 사람들의 건강증진에 리용되는 오랜 력사적과정에 형성발전되어 전통적으로 전해져오는 각이한 종류와 형식, 다양한 봉사방법들로 구성된 치료 및 휴양, 숙박 등의 진행 전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의 온천문화는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습니다.

고구려시기에는 극소수의 특권계층이 온탕을 즐기었다면 고려시기에 이르러서는 많은 사람들이 온천욕을 하였습니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 들어와서는 온천의 형성과 특징, 조성, 인체와의 호상관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심화되면서 온천이 각종 질병치료에 특효가 있다는것이 밝혀졌으며 그에 따르는 각이한 치료방법들도 탐구되었습니다.

온천을 리용한 치료방법들을 서술한 어느한 옛 문헌에는 온탕에 들어가고 나올 때 주의할 점과 치료시간과 회수, 치료기간의 음식조절법 등이 자세히 써여져있는데 이것은 이 시기에 광천반응현상에 대응하여 효과적인 치료방법을



실내온천장에서





야외온천장에서



스키장에서

장들, 흰눈이 내려쌓인 소나무아래 더운 김을 물씬물씬 피워올리는 각이한 온천욕조들... 양덕온천문화휴양지는 사계절 관계없이 그 어느때나 찾아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많은 사람들로 흥성이고 있습니다.

동포여러분도 조국에 오시면 양덕온천문화휴양지에서 자기의 인생에 또 하나의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기 바랍니다.

글 연옥, 사진 리철진, 안광일

찾아내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안남도 양덕군의 읍지구와 온정리일대에서 솟아나는 양덕온천의 특징은 용출량이 대단히 많고 온도가 높을뿐 아니라 라돈이 극히 적고 류황이나 불소 등이 포함되어 약리적작용과 치료효능이 좋으며 전혀 오염되지 않은것입니다.

때문에 양덕온천은 만성위염, 통풍, 중금속중독, 이삭기, 뼈송소증, 건선 및 태선을 비롯한 피부병, 류마치스성관절염, 변형성척추관절염, 수술후유증, 신경통 및 신경염, 자궁부속기염 등의 치료에 쓰이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에는 일정한 형태의 욕조를 만들고 병을 치료하였지만 지금은 온천수를 마시는 방법, 온천수를 담은 통에 몸을 잠그는 방법, 수중건인, 장세척 등으로 병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동포여러분, 오래전부터 양덕이라는 지명은

우리 나라의 유명한 민요인 《양산도》와 더불어 사람들속에 널리 알려졌지만 너무도 궁벽한 산골이어서 사람들의 발길이 많이 닿지 않던 곳이였습니다.

그러한 양덕땅이 오늘은 읍지구에 룡양지가 일떠서고 온정리일대에는 휴양지가 솟아올라 온 나라 인민들모두가 찾아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명소중의 명소로, 세상사람들도 한번 꼭 가보고싶어하는 고장으로 전변되었습니다.

더우기 양덕온천문화휴양지에는 온천욕도 하고 스키도 탈수 있으며 승마운동도 할수 있는 종합적이고 다기능화된 복합체육문화기지가 꾸려짐으로써 우리 나라의 온천문화는 더욱 활기를 띠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산골경치와 조화를 이루고 양지바른 산기슭에 아담하게 일떠선 다락식숙소들과 현대적인 봉사 건물들, 봉우리에서 뿔어내린 스키주로들, 승마



승마장에서

세계지질공원

백두산지구 (7)

백두산지질공원에는 사람들에게 억센 힘과 열정을 안겨주는 장쾌하고 웅장한 폭포들도 있어 백두산의 웅장장중한 풍치를 더욱 풍만하고 아름답게 해주고있다.

백두산의 폭포들은 주로 백두산화산체의 경사면과 기슭지대에 분포되어있는데 대표적으로 사기문폭포, 형제폭포, 백두폭포 등이 있다.

백두폭포

백두폭포는 백두산의 주봉인 장군봉에서 남동쪽으로 약 2km 떨어진 곳에 있다.

백두산지질공원구역에서는 무두봉동에 속한다. 높이 12m, 너비 0.8m의 폭포지형은 백두산화산의 분출시기 여러 차례 분출한 용암이 골짜기로 흘러들어 겹쌓여 계단이 생기면서 형성되었다. 폭포의 기반암은 류문암이다.

압록강의 발원점인 샘에서 흐르기 시작한 물이 사기문폭포수와 합쳐져 거의 직선으로 된 급한 골짜기를 따라 흐르다가 바위벽으로 떨어지면서 폭포로 되는데 마치도 비단필을 드리운듯하다.

폭포가 떨어지는 계곡은 흙처럼 좁다. 폭포의 밑에는 폭포수에 의하여 이루어진 둘레 20.1m, 최대물깊이 0.75m 되는 길둥근 모양의 소가 있다.

백두폭포의 물줄기주위에는 물보라가 일어나는데 햇빛을 받으면 은빛으로 빛난다.



사기문폭포

사기문폭포는 백두폭포에서 백두산의 장군봉방향으로 계곡을 따라 약 300m 떨어진 곳에 있으며 높이는 17.9m이다.

이 폭포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세번 꺾어내리는것으로 하여 3단 폭포라고도 부른다. 첫번째 단의 높이는 6.7m, 두번째 단의 높이는 4m이며 세번째 단의 높이는 7.2m이다. 폭포의 밑에는 둘레가 약 11m, 너비가 1.8m, 길이가 4.2m 되는 소가 있다.

폭포는 북동 10° 와 북동 60° 방향의 단층들이 사귀는 흑요석질류 문암절벽에 형성되었다.

사기문폭포는 천지에 시원을 두고있는 샘으로부터 1km정도 떨어진 곳에서 시작되는 압록강계곡에서의 첫 폭포로서 골짜기를 따라 흐르는 물이 절벽아래로 떨어지면서 형성된다.

형제폭포

형제폭포는 백두폭포에서 남쪽으로 약 1km 떨어져있다.

두개의 폭포가 나란히 놓여있다고 하여 형제폭포라고 한다. 높이는 8m정도이며 너비는 1.5~2m이다. 기반암은 현무암과 류문암으로 되어있다.

형제폭포는 그리 크지 않지만 장엄하고 기묘하기로 알려져있다. 폭포수는 천지에 원천을 두고있으며 거의 수직으로 서있는 절벽으로부터 떨어지면서 주위에 뽀얀 물보라를 일으키는데 이로 하여 폭포의 풍치를 더 아름답게 해준다. 물량이



풍부하며 특히 눈석이시기와 여름철에 더 많다. 폭포의 바닥에는 깊이 1m, 둘레 10m정도의 소가 있다. 형제폭포의 주변에는 들쭉나무, 만병초를 비롯한 고산식물들이 자라고있다.

리명수폭포

리명수폭포는 압록강지류인 리명수기슭에 있다.

이 폭포는 백두산에서 분출한 현무암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리명수골짜기의 오른쪽절벽에 비단필을 드리운듯 걸려있다.

폭포의 기본물줄기는 9개이며 이 물줄기사이 구슬처럼 흘러내리는 무수한 작은 폭포들이 희한한 장관을 이루고있다.

리명수폭포는 백두산형성 1단계에 형성된 현무암층들의 분출중단면을 따라 사철 마르지 않고 흘러나오는 지하수폭포이다. 폭포의 높이는 18m, 물량은 초당 0.8m³정도이다.

봄에는 진달래꽃, 여름에는 푸른 숲, 가을에는 단풍이 리명수폭포와 잘 어울려 철따라 류다른 경치를 나타낸다.

그가운데서도 리명수폭포의 겨울풍경은 볼수록 매혹적이다. 폭포는 겨울철에 얼음폭포로 변하거나 얼지 않는 물줄기가 있는가 하면 고드름사이로 흐르는 물도 있다. 특히 땅속에서 흘러나온 물이 찬 대기와 접하면서 생기는 안개가 주변의 나무들에 하얀 서리꽃을 피워 이 일대를 서리꽃 숲으로 변하게 하는데 이런 경치는 그야말로 다른 곳에서는 보기 드물다.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이 절벽에 만들어놓는 얼음기둥도 장관이다. 시간이 감에 따라 그 모양을 바꾸는데 마치 금강산의 만물상을 그대로 옮겨놓은것만 같다. 그 무수한 얼음기둥에 떨어지는 폭포소리와 합쳐져 리명수의 물소리는 여름보다 겨울에 더 높다.

리명수폭포는 보기 드문 신기한 지하수폭포로서 풍치상 의의가 큰것으로 하여 1980년 1월 천연기념물 제345호로 지정되어 보호관리되고있다.



백두산일대에서 새로운 유적들 발굴

조상전래로 백두산을 조종의 산으로 숭상해온 우리 인민의 애국심과 풍속을 보여주는 력사 유적들이 새로 발굴고증되었다.

이번에 백두산과 그 주변의 넓은 지역에서 발굴된 유적들은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무덤들로서 우리 선조들이 조상의 유골을 이곳에 묻어왔다는것을 확증해주는 객관적이며 유력한 물질사료로 된다.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의 연구집단은 백두산일대에서 력사유적들에 대한 조사 및 발굴 사업을 심화시켰다.

이 과정에 이미전에 삼지연 1호못 섬에서 발굴된 조선사람의 무덤과 형식이 같은 무덤들이 백두산천지호반에서 5기, 량강도 대흥단군과 함경북도 무산군지역에서 4기가 발굴되었으며 무덤들의 특성과 연원, 년대가 과학적으로 해명되었다.

연구집단은 무덤들의 분포상태,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 사

람들의 무덤특성, 장례법 등을 전면적으로 연구분석한데 기초하여 새로 발굴된 무덤들이 모두 봇나무껍질로 감싼 유골을 구덩이안에 안치하고 흙으로 된 봉분위에 전면 혹은 밑부분 절반정도를 돌로 씌운 형식으로서 량강도와 함경남북도일대, 중국 동북지방에서 살던 발해사람들의 무덤형식과 장례법에 연원을 두고있으며 다른 민족들의 무덤형식, 장례법과는 본질적으로 차이난다는것을 확증하였다.

로씨야 노보씨비르스크국립종합대학과 공동으로 진행한 유골들에 대한 방사성탄소년대측정을 통하여 무덤의 주인공들이 대체로 18세기중엽-19세기중엽의 사람들이라는것이 밝혀짐으로써 18세기중엽부터 량강도와 함경북도를 비롯한 백두산일대에서 살던 조선사람들이 조상의 유골을 이곳으로 운반하여 묻어왔다는 력사적사실이 처음으로 해명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고학학회에서는 백두산천지호반을 비롯한 량강도와 함경북도일대에서 조사발굴된 무덤의 주인공들이 발해의 무덤풍습을 이어온 조선사람들이라고 심의, 평정하였다.

백두산천지호반에서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냈던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제단유적과 일제의 군사적강점시기 나라를 구원할성인이 출현하기를 기원하여 묻은 대중교관련유물들에 이어 이번에 무덤들이 새로 발굴됨으로써 우리 선조들이 력대로 수백리의 원시림을 헤치고 천지에 올라 조상의 유골과 유물을 묻으면서 백두산을 조종의 산으로 숭상하였으며 신성한 우리의 령토로 간주하여왔다는 력사적사실이 과학적으로 확증되게 되었다.

글 진룡진
사진 조선중앙통신



백두산의 《룡신비각》



《룡왕룡신비각 청정대태백 대택수수증비각 래래무량안정》이라는 글이 새겨져있다. 그 글자들은 이 비석이 수정처럼 맑고 깨끗한 백두산천지에 있는 《룡왕룡신》에 대한 비석이라는 뜻과 영원무궁토록 안정하게 해줄것을 바란다는 뜻을 담고있다.

우리 선조들은 장엄하고 신비로운 백두산천지에 하늘의 조화를 일으키는 《룡왕》이 있다고 여기면서 백두산과 그 주변에 《종덕사》나 《천왕당》과 같은 건물을 지어놓고 제사를 지내면서 백두산이 나라를 번영하게 해줄것을 기원하였다.

20세기초 일제의 침략책동으로 이 땅우에 망국의 비운이 드리웠던 시기 우리 인민들은 백두산의 《룡왕룡신》에게 이 나라 사람들의 운명을 의탁하는 글을 새긴 비석을 천지기슭에 세웠다. 그것이 바로 《룡신비각》이다.

이처럼 《룡신비각》에는 백두산에서 나라의 무궁한 안정을 지켜줄 천출위인이 출현하기를 목마르게 갈망한 우리 인민의 념원이 깃들어있다.

글 김성영
사진 최은혁

우리 나라 조종의 산 백두산 마루에는 귀중한 력사유적인 《룡신비각》이 있다.

《룡신비각》은 원래 백두산 천지호반에 있었다.

비석의 높이는 1m정도이다.

비석의 앞면에는 《대태백 대택수 룡신비각》이라는 글이 새겨져있다.

여기서 《대태백》은 백두산을 의미하며 《대택》은 큰 못이라는 뜻으로서 천지를 의미한다. 그리고 《수》라는 글자는 지킨다는 뜻이다. 이것은

이 비석이 백두산을 지키는 천지의 룡신에 대한 비석이라는것을 의미한다.

비석의 뒤면 윗부분에는 《지궁》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는데 이것은 천지가 땅우에 있는 가장 으뜸가는 룡왕의 궁전이라는 뜻을 담고있다.

우리 선조들은 해발 수천m나 되는 높은 산정에 바다마냥 장엄하게 펼쳐져있는 백두산의 천지를 《룡왕》이 있는 지상의 궁전으로 신성하게 여겨왔다.

《지궁》이라는 글아래에는

지명유래

룡강군

룡강군은 남포시에 위치하고있다. 이 지역은 조선봉건왕조시기 룡강현으로 있다가 19세기 말에 룡강군으로 되었다.

룡강은 환상적동물인 룡이 오르는 큰 뾰(산)가 있는 곳이라는 뜻에서 지은 이름이다. 즉 《룡 룡》자와 《언덕 강》자를 따서 붙인 이름이다. 여기서 뾰(산)는 이 지역에서 제일 높은 오석산을 의미하였다.

군소재지의 안성동에는 고구려벽화무덤인 룡강큰무덤과 쌍기둥무덤이 있다. 옥도리에는 오석산의 자연지세를 리용하여 고구려시기에 쌓은 황룡산성이 있다. 석천산 남쪽중턱과 그 주위에는 120여개의 고인돌무덤(석천산고인돌무덤떼)이 있다.

5세기의 고구려벽화무덤인 룡강큰무덤은 규모가 큰데다가 언덕우에 올려놓아 더 커보이게 하였다. 무덤칸도 정밀하게 만들고 성곽도를 비롯한 여러가지 벽화를 정교롭게 그려 무덤안을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이러한것들은 이 무덤의 주인이 비교적 높은 신분에서 속하였다는것을 알수 있게 한다. 이 무덤은 5세기 고구려의 사회관계, 성곽건축술과 회화술을 연구하는데 많은 자료를 제공하여 주는 력사유적이다.

서도지방의 대표적인 로동민요 《룡강기나리》는 룡강군을 중심으로 널리 퍼지였다. 지난 날 논김, 밭김을 매면서 부르던 민요에는 조선서해를 낀 이 지방인민들의 생활과 소박한 심리정서상태가 반영되어있다.

군에는 화강석을 채취하여 가공하는 오석산화강석광산을 비롯한 광산들이 있다.

* * *



상식

활쏘기

우리 인민들은 오랜 옛날부터 활쏘기를 나라의 방위와 몸과 마음을 단련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널리 진행하여왔다.

고구려시기에는 주로 말을 타고 활로 짐승을 쏘아잡거나 고정된 기구우에 달아놓은 목표를 쏘아떨구는 내기를 많이 하였다.

5세기초의 벽화인 덕흥리무덤벽화에 그려져있는 《마사회》는 당시 우리 인민들속에서 진행되었던 활쏘기를 고증해주고있다.

우리 나라의 첫 봉건국가였으며 천년강국이었던 고구려의 시조왕인 고주몽전설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다. 그가 7살때에 활과 화살을 만들었는데 쏘는대로 다 맞혔

으며 그후에는 백보밖에 걸어놓은 자그마한 가락지도 단번에 명중시켰다고 한다. 주몽이란 이름도 부여에서 활 잘 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에서 유래되었다. 주몽에게는 류리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도 아버지처럼 활을 잘 쏘았다. 어느날 류리에게 동네아이들이 달려와 활쏘기습씨를 보여달라고 졸랐다. 류리는 멀리 나무가지에 앉은 새를 겨냥하여 화살을 날렸다. 그런데 《핑-》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입에서는 《아차》하는 말소리가 튀어나왔다. 그가 활시위를 놓는 찰나에 동이를 인 동네의 한 아낙네가 그의 눈과 과녁사이에 들어섰던것이다. 화살은 아낙네가 머리에

인 물동이에 구멍을 내고야말았다. 그러나 다음순간 류리는 재빨리 화살에 진흙을 발라서 재차 쏘아 물동이에 난 구멍을 막았다고 한다.

고려시기에도 활쏘기는 나라의 방위에 이바지하는 무술련마놀이로 장려되었으며 활쏘기경기가 성황을 이루었다.

조선봉건왕조시기 활쏘기는 기술적으로 더 발전하였다.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는 활쏘기는 오늘 중요경기종목으로 발전하였다.

활쏘기는 2015년 11월 국가비물질문화유산 제36호로 등록되었다.

* * *



풍자시인 김삿갓

김삿갓은 19세기전반기 우리나라 시단에서 독특한 자리를 차지한 재능있는 풍자시인이며 방랑시인이었다.

그의 본명은 김병연인데 언제나 삿갓을 쓰고다녔으므로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김삿갓이라고 하였으며 이것은 본명보다 더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 사람들은 바람부는대로, 물결치는대로 떠도는 인생, 세상잡일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배회한다고 하여 그를 보고 《조선의 신선》이라고 하였다.

그는 1807년 3월 김안근의 둘째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원래 권세있는 량반가문이었으나 김삿갓이 5살 나던 해 할아버지가 농민군에게 항복한것으로 하여 사형당하고 그의 가족은 폐족처분을 받았다.

20살이 되어서야 집안의 배력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김삿갓은 이때부터 근 40년간 삿갓과 대지팡이를 벗으로 삼고 전국각지를 떠돌아다니면서 봉건사회의 불합리한 현실을 체험하게 되었다.

그는 자기의 생활체험에 기초하여 보통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기발한 착상과 수법으로 부패한 량반통치배들을 풍자비판하고 봉건적착취와 압박 밑에서 신음하는 인민들의 비참한 처지를 동정하는 독특하고 우수

한 시들을 수많은 창작하였다.

그의 시적재능은 《시시비비가》(《옳고 그름의 노래》라는 뜻)에 반영되어있다.

시시비비비시시 (옳은것을 옳다 하고 그른것을 그르다 함도 옳지 않으며)

시비비시비비시 (그른것을 옳다 하고 옳은것을 그르다 함이 옳지 않음이 아니다.)

시비비시시비비 (그른것을 옳다 하고 옳은것을 그르다 함이 그른것이 아니며)

시시비비시시비 (옳은것을 옳다 하고 그른것을 그르다 함이 그른것을 옳다 함이로다.)

단 두 글자를 가지고 심오한 사상을 표현한 바로 여기에 김삿갓의 시적재능이 있다.

김삿갓의 시들은 인민들의 처지를 진실하게 반영하고 량반들의 반인민적죄행을 재치있고 날카로운 풍자의 수법으로 폭로 단죄한것으로 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그는 어딜 가나 인민들의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

김삿갓의 시들가운데는 인민들의 비참한 처지를 동정한 시 《가난을 읊노라》, 《비를 만나 촌집에서 묵으며》 그리고 무위도식하는 량반들을 풍자조소한 《원생원》, 《온종일 머리숙인 나그네》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이 있다.

김삿갓은 시를 창작함에 있어서 엄격한 한시작시법에 구애되

지 않고 자기식의 독특한 과격 시들을 많이 썼으며 기발한 풍자의 수법으로 봉건말기의 온갖 낡고 추악한 면들을 해학과 익살로 풍자비판하였다.

김삿갓은 조국의 아름다운 자연풍경을 노래한 작품들도 적지 않게 창작하였는데 이 작품들은 예리한 관찰과 기지에 찬 시적 표현으로 하여 인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의 시들은 《해동시선》, 《대동시선》 등에 실려있으며 또한 1930년대에 그의 시들을 수집하여 묶은 《김립시집》과 1956년에 출판된 《풍자시인 김삿갓》 등에도 실려있다.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소
실장 박사 부교수 임승진



명숙명길 쉼쉼대보름

우리 인민들은 오랜 옛날부터 정월대보름을 민속명절로 즐겁게 쇠어왔다.

정월대보름은 보통 음력 1월 14일부터 시작되었는데 14일은 작은 보름이라고 하고 15일 당일날은 대보름으로 불렸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은 최대로 밝아지는 보름달을 복을 가져다주는 행운의 상징으로 보았으며 새해에 첫 보름달이 뜨는 정월대보름날을 한해의 풍작과 풍어, 행복을 기원하는 중요한 계기로 여기고 설명절다음으로 크게 쇠어왔다.

이날을 맞으며 사람들은 새해에도 농사가 잘되고 가족성원들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여러가지 특색있는 명절음식들을 만들어먹곤 하였다.

정월대보름의 명절음식으로

는 약밥, 오퍩밥, 국수, 복쌈, 갓가지 마른나물반찬 등이 이채를 띠었다.

약밥을 정월대보름의 명절음식으로 만들어먹어온 력사는 매우 오래다. 옛 기록들에서는 약밥을 가리켜 향반(향기로운 밥), 잡과반(여러가지 과일을 섞은 밥)이라고도 하였다.

오퍩밥과 복쌈도 정월대보름에 즐겨 먹어온 명절음식이었다.

오퍩밥은 다섯가지 알곡을 섞어서 지은 밥으로서 오퍩잡밥이라고도 하였다.

복쌈은 말그대로 복을 썬 쌈이라는 뜻으로서 보름날 여러가지 남새나 김 등으로 밥을 싸먹는것을 의미하였다.

우리 인민들이 오래전부터 즐겨 만들어먹어온 국수도 정

월대보름날에는 특별한 의미를 담은 명절음식이었는데 여기에는 국수오리처럼 행복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는 의미가 담겨져있었다.

마른나물반찬은 갓가지 마른나물들을 가지고 만든것으로서 보름날에 먹는 나물이라고 하여 민간에서는 《보름나물》이라고 하였다. 예로부터 민간에서는 정월대보름날에 묵은나물반찬을 먹어야 그해에 앓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수 있다고 알려왔다.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정월대보름의 명절음식들은 오늘도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에 널리 리용되고있다.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소
연구사 안현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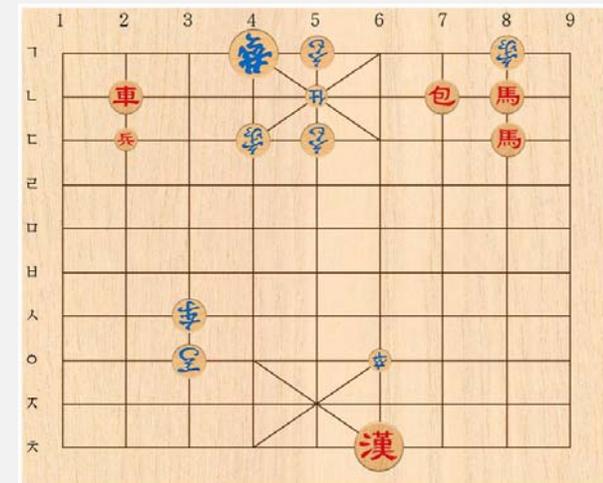
장기수풀이 (39)

장기격언
얼음판의 방망이 《졸》

마감단계에서 큰 《족》들이 없는 경우에 《졸》들의 공격에서 거침이 없다는 뜻이다. 이 말은 비록 《졸》이라도 마지막결속단계에서는 큰 역할을 한다는것을 의미하고있다.

장기수풀이 (38)의 답
ㄱ7차ㄷ7, ㄴ6궁ㄴ6, ㄷ7차ㄴ7, ㄴ6궁ㄷ6, ㄱ6상ㄹ9, ㄱ4차ㄹ7, ㅋ4포ㄷ4, ㄴ5차ㄷ4, ㄴ7차ㄴ6, ㄱ6사ㄴ6, ㄷ8말 17 《장훈》

붉은색쪽이 먼저 써서 푸른색쪽을 이겨야 한다.



쫄떡에 깃든 사연

(전호에서 계속)

어느날 솔메는 새벽이슬을 맞은 10년묵은 산삼을 꿀에 푹 재워먹으면 속병에 직효라는 말을 듣고는 새벽이슬을 헤치며 마을뒤에 솟은 달맞이산으로 올랐다.

힘한 벼랑길과 가시덤불숲을 헤치며 산판을 오르내리던 솔메는 산삼을 한뿌리도 캐지 못한 채 산을 내리었다.

솔메가 산속을 벗어나 평퍼짐한 둔덕에 이르니 거기에는 파란 잔디가 비단필처럼 펼쳐졌는데 그속에 다문다문 민들레와 쫄떡들이 돌아있었다.

풀판에 아침해빛이 눈부시게 비쳐서인지 잔디들은 기묘한 무늬를 수놓으며 두눈을 자극하였다.

(몸이 왜 이렇게 나른해질가.)

솔메는 온몸의 맥이 풀리는것을 느끼며 잔디 위에 스프르 주저앉았다.

솔솔 불어오는 부드러운 바람이 솔메의 귀밑머리카락을 스치며 얼굴을 간지럽히었다.

아침이슬을 맞아 푹 젖었던 옷자락에 따스한 해빛이 비치자 그의 몸은 점차 훈훈해지기 시작하였다.

마치 포근한 이불속에 든것같은 안정감을 느끼며 솔메는 저도 모르게 살며시 눈을 내리감았다.

...

아지랑이 아물거리며 피어오르는 넓은 들판은 마치 푸른 비단을 펼쳐놓은듯 아름답기 그지없었다.

그 들판으로 솔메가 다래끼를 옆에 끼고 치마자락을 날리며 춤추듯이 달려가는데 갑자기 그의 앞에 파르스름한 풀대들이 불쑥불쑥 솟구쳐 올라 길을 막았다.

(무슨 풀대들이 나를 둘러싸는걸가.)

솔메는 무릎을 꿇고앉아 풀대를 하나 당겨잡고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풀대는 두어자가 넘게 자랐는데 어긋치며 뻗

어나간 가지에는 뽕족뽕족한 파란 잎들이 다문다문 돌아있었다.

파란 잎새들은 바람결을 따라 보르르한 흰털이 덮인 뒤면을 살짝 드러냈다감추었다하며 제 모습을 자랑하는듯하였다.

《아유, 무슨 풀인가 했더니 우리 마을 들판과 밭두둑에 많은 쫄떡이로구나.》

솔메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일어나 걸음을 옮겼다. 순간 솔메의 앞에는 난데없이 흰수염을 드리운 할아버지 한분이 오른손에 파란 쫄떡을 들고 나타났다.

《솔메야, 놀라지 말거라. 나로 말하면 이 땅을 지키는 단군신선이로다. 네가 남편을 위해 애쓰는 마음이 기특하여 내 약처방을 내려주려 하니 잘 듣거라.

너는 이제부터 마을에 흔한 쫄떡을 뜯어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석달 열흘동안 매끼 삶아 우려낸 쫄떡을 한웅큼씩 번지지 말고 남편에게 먹이거라. 그러면 너의 소원대로 남편의 병을 꼭 고칠 수 있을게다.》

《정말로 고칠수 있소이까?》

《암, 고치구 말구. 병을 털고 장수가 될수 있으니 내 말대로 해보아라.》

《신선할아버님! 정말 고답소이다. 꼭 명심하겠소이다.》

솔메는 땅에 닿도록 머리를 숙여 절을 올리고 일어섰다.

그러자 금방 앞에 서있던 그 신선할아버지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다만 동쪽하늘가 멀리에 신선의 옷자락인듯 흰구름 한송이가 흘러가고있었다.

그 구름송이가 마치 사라져버린 신선처럼 느껴져 그것을 잡아보려고 허둥지둥 쫓아가던 솔메는 그만 발을 헛디더 아찔한 벼랑에서 떨어졌다. ...

《앗!》소리를 치며 솔메가 눈을 뜨니 그것은 꿈이었다. 솔메는 아쉬운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니? 아직 내가 꿈속에서 있는것이 아닌가?

분명히 꿈속에서 보았던 그 쫄떡들인데.》

솔메는 이상스럽고 놀라운 눈으로 주위에 돌아있는 쫄떡들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지난번 쫄떡이 속병에 좋다는 이웃집너인의 말을 왜 소홀히 여기고 뉘버렸던가. 생각해보노라니 어렸을 때 여름밤 쫄떡을 태워 모기를 쫓으며 쫄떡이 예로부터 병치료에 좋은 약재라고 이야기 하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당장 고개너머 의원을 찾아가자.

솔메는 곧장 의원을 찾아가 쫄떡으로 속병을 치료하는데는 쫄떡을 달여먹는 방법밖에 없다는것을 알아가지고 돌아왔다.

그러나 남편에게 쫄떡을 많이 먹여야 한다는 조급성이 앞선 솔메는 쫄떡을 뜯어다 삶아 물에 행구어 성의껏 요리하여 그날 저녁상에 올렸다.

그 쫄떡을 먹던 남편은 얼굴을 찡그리며 이렇게 물었다.

《이게 무슨 나물이요? 너무 쓰거워 넘길수가 없구만.》

《쫄떡으로 만든 찬인데 쓰긴 하지만 속병에 좋하기에...》

솔메는 미안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쫄떡을 만들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였다.

남편은 그 말에 감동하여 억지로라도 찬을 다 먹으려 애썼지만 속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찬그릇을 내지 못하였다.

그때부터 솔메는 어떻게 하면 쫄떡의 쓴맛을 없애고 맛나는 식찬으로 만들수 있을가 하고 생각하였다.

그는 거듭 궁리하던 끝에 삶아낸 쫄떡을 물에 여러 시간 담그어 쓴맛을 우려내었다. 다시 쫄떡을 만들어 맛을 보니 쓴맛은 없어졌으나 숨덩이를 씹는듯 질기어 도저히 목구멍으로 넘길수가 없었다.

솔메는 삶아우려낸 쫄떡으로 쫄떡밥도 지어보고 국도 끓여보았으나 어느것 하나 신통한것이 못되었다.

어느날 질긴 쫄떡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절구에 넣고 찡던 솔메는 문득 난알과 함께 찡어서 떡을 만들면 어떻겠는가고 생각하였다.

난알과 섞으면 매끈해지기때문에 넘기기도 쉬울것같았다. 그래서 그는 삶아우린 쫄떡을 절구에 넣고 보드랍게 찡은 다음 조참쌀가루를 넣어 섞어서 반죽하여 시루에 넣고 김을 올렸다.

김이 오르기 시작하자 향긋한 쫄떡과 구수한 난알냄새가 부엌에 가득 어리었다. 솔메는 떡김이 적당히 오르자 쫄떡이 퍼져 파르스름하게 익은 떡덩이를 꺼내어 보기 좋게 떡을 빗어서 남편에게 대접하였다.

솔메는 흐르는 땀을 씻으며 이번엔 또 뭐라고 할가 하는 기대와 안타까운 마음을 조이며 남편의 식사하는 모습을 눈여겨 보았다.

남편은 상우에 놓인 파르스름한 쫄떡을 하나 들어 입에 넣고 씹더니 인츰 꿀걱소리를 내며 목구멍으로 넘기는것이였다.

《아주 맛이 좋구만. 눈맛도 있고 입맛은 더욱 별맛이요. 맨 조참떡보다 더 맛이 있소. 자, 어서 하나 들어보우. 정말 목구멍으로 허가 따라넘어갈 지경이요.》

순간 솔메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어리었다.

그는 남편이 집어주는 떡을 소중히 받아 입에 넣고 맛을 음미하며 씹어넘겼다. 쫄깃쫄깃한 떡에서 향긋한 쫄떡냄새가 폐부로 흘러들며 상쾌한 맛을 주었다.

《정말 별미구만요. 이제 됐소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하늘을 감동시킨 당신의 정성이 이렇게 맛있는 쫄떡을 만들어냈구려. 앞으로 이런 쫄떡을 자주 만들어 먹지요.》

《그렇게 하겠사와요. 그러면 식량보탬도 되고 몸에도 좋으니 그야말로 쫄떡고 알먹는 격이 되겠소이다.》

이튿날부터 솔메는 즐거운 기분으로 부지런히 쫄떡을 뜯어다가 삶아서 우려내어 여러가지 난알가루와 섞어 떡을 빗어 상우에 올렸다.

이 쫄떡으로 하여 가정에는 화기가 넘쳐났다. 향긋한 쫄떡에 맛을 들인 후부터 남편의 오랜 속병은 점차 나아져갔고 건강도 회복되어갔다.

솔메는 매끼 쫄떡을 만드는것이 품이 많이 들었으나 힘든줄 몰랐고 떡도 쫄떡편, 쫄찰떡, 쫄송편 등 여러가지로 만들어 남편에게 드렸다.

쫄떡으로 때식을 하여 한달이 되자 남편은 얼굴에 희색이 돌아 불깃불깃해졌으며 두달이 되면서부터는 몸이 부해지고 힘과 기운도 솟아났다.

(다음호에 계속)



잡지 《금수강산》은 인터넷 《조선의 출판물》 홈페이지에
조선어, 로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주 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자우편: flph@star-co.net.kp

